Weekly 공감

NO.238
Korea.kr/gonggam
2013.12.23

기획특집

문화융성 원년, '함께하는 문화' 훌씨 흩날린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청년고용지수 도입해 우수기업 발굴"

국민애벌레 '라바' 맹주공 감독 "인류 공통유머로 '빵' 터졌어요"

아름다운 삶 '이야기 할머니'

정선주
강원 평창·이야기 할머니

요즘 강원도 평창엔 혹독한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도 많이 와서 외출하기에도 어렵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마 꼼짝하지 않고 집에만 있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날이 추운데도 저를 설레게 하는 '특별한 외출'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3월부터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인근 유치원을 찾아가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제 일입니다. 작년에 인터넷을 하다 우연히 '이야기 할머니'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제가 워낙 아이들을 좋아해서 관심이 갔습니다. 운이 좋아 합격하게 돼 1년 정도 교육을 받고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도 너무 즐겁고, 저를 꼭 필요로 하는 곳이 생겼다는 게 참 기쁩니다. 적어도 1년 동안은 제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는 게 저를 설레게 만듭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제가 가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런 걸 보면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추운 날 집을 나서는 게 조금도 고생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하면서 제 삶은 풍성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야기의 내용을 외워야 하고, 이야기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늘 좋은 이야기를 머릿속에 외우고 다니게 되면서 제 마음도 반듯해지게 됐습니다. 이전에 비해 자연스럽게 좋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제 삶은 더욱 여유로워지고 풍성해졌습니다.

늘 좋은 이야기를 머릿속에 외우고 다니는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하면서 제 삶은 더욱 여유로워지고 풍성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 그 눈높이에 맞춰 내용을 들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부대끼며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노년기에 접어들면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줄어들고 점점 외로워진다는 내용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하면서 아이들과 부대끼며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한 발짝 먼저 다가가면 얼마든지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제게 '이야기 할머니' 활동은 앞으로의 노후생활을 뜻깊게 보낼 수 있는 든든한 보험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학진흥원이 지난 3월부터 전국 2,680개 유아교육기관에 '이야기 할머니' 917명을 파견해 진행하는 이야기 교육 활동이다. 아이들에게는 인성교육을, 어르신들에게는 문화를 활용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52

14

06

60

기획특집

문화융성 원년 '함께하는 문화' 홀씨 흩날리다

19

국민안전 · 생활편의 제도

중점기획 | 정부3.0

표지이야기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한 해를 '문화융성 원년'으로 정하고 문화예술과 체육, 관광, 문화콘텐츠산업 등을 분야별로 강화했다.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 뿌리내린 문화융성의 기운이 활기차게 용솟음치고 있다.

위클리 공감
발행일 2013. 12. 23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진룡
제작협력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인쇄제본** 삼화인쇄 **제작문의** ☎ 044-203-3016
구독관련문의 ☎ 02-2625-3294 이메일 jjsmall@korea.kr
〈위클리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위클리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2월 30일(월)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위클리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답글

235호 〈국민안전 · 생활편의제도/성범죄자 알림e사이트〉 기사를 읽고

이정란(부산시 사하구 다대1동)

내년 하반기부터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열람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여행을 하거나 출장 중일 때도 모바일 앱으로 검색하면 주변 성범죄자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니 많이 기대가 됩니다.

ㄴ **답글**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열람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2월에 개발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시험운영 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 김종문 주무관(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236호 〈겨울철 건강과 패션 지키는 '온맵시'〉 기사를 읽고

정희영(서울 강남구 논현동)

평소 추위를 잘 타는 편입니다. 올해 겨울은 특히 추울 거라고 해서 많이 걱정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온맵시' 방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ㄴ **답글** 그린스타트 홈페이지(www.greenstart.kr)에 가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온맵시의 4가지 실천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소품 활용, 옷 입는 방법, 신발 신기 등 다양한 온맵시 노하우를 배울 수 있습니다. – 한기설 주무관(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237호 〈기획특집–웃다 울다…문화예술의 힘을 느껴요〉 기사를 읽고

민소윤(창작국악그룹 아나야 대표)

문화나눔의 횟수와 관객을 늘리기보다는 문화나눔을 한번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시 찾고 즐길 수 있도록 중간에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ㄴ **답글**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이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같은 지역을 여러 번 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의 한계 때문입니다. 문화나눔을 하는 가까운 다른 지역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공연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 김봉수 과장(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복지부)

지난호를 만들고 나서

차디찬 겨울 추위를 녹이는 '문화의 온기'

하모니카를 들고 외할머니 방을 찾았던 중학생 때가 생각납니다. 외할머니는 손주가 들려 주는 하모니카 소리를 무척 좋아하셨지요. 당시 앞을 잘 못 보셨던 할머니께 음악은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였습니다.

지난호 '문화나눔'을 취재하며 그때 할머니께 들려 드렸던 하모니카 연주가 떠올랐습니다. 소외지역 · 계층에 전해 주는 멋진 공연 프로그램도 좋지만 가족과 이웃, 지인들에게 전하는 소소한 문화나눔도 값진 것이 아닐는지요.

차디찬 겨울은 특히 문화의 온기가 더없이 필요한 계절이 아닐까 합니다. 홀로 외로이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을 찾아 문화나눔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글 · 남형도 기자

'댓글에 답글'

〈위클리 공감〉의 독자참여 기회가 더욱 다양해지고 편리해집니다. 인터넷이나 SNS에 접속해서 정부 정책이나 기사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담당 기자나 정부 관계자들의 친절한 답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gonggam.korea.kr
블로그	koreablog.korea.kr
트위터	@weeklygonggam
페이스북	www.facebook.com/wegonggam
탭진(디지털매거진)	www.tabzin.com
리디북스	ridibooks.com
정책브리핑	www.korea.kr

알림

제13기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 공개 모집

대법원에서는 제13기 영블로거위원회를 공개 모집합니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선발된 학생은 대법원 온라인 홍보에 참여하게 됩니다.

응모자격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지원 가능), 모집인원 : 20명
활동기간 2014년 2월 1일부터 6개월
주요활동 대법원 온라인 홍보 참여 및 홍보 · 아이디어 제공, 대법원 블로그에 게시할 포스트 및 웹툰, UCC 제작
활동특전 각급 법원 및 사법연수원 견학 기회 제공, 소정의 활동비 지급, 활동 우수자에게 대법원 인턴십 체험 기회 부여
응모일정 12월 29일까지
접수방법 대법원 블로그 (blog.naver.com/law_zzang)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law_zzang@naver.com)로 접수
문의 대법원 공보관실 ☎ 02-3480-1455

2014 고용정책 수립 위한 학술논문 공모

한국고용정보원은 매년 고용정책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학술대회를 위한 논문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응모자격 ▶전문가 부문 : 대학교수, 대학강사 및 연구기관 연구자(교수와 대학원생 공동연구 가능)
▶학생 부문(경진대회) :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응모주제 고졸자 취업진로 조사, 대졸자 직업이동경로 조사, 청년패널 조사, 고령화연구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한 학술논문
시상내역 ▶최우수상(0편) : 상장 및 상금(200만원)
▶우수상(0편) : 상장 및 상금(100만원)
▶장려상(0편) : 상장 및 상금(70만원)
응모일정 2014년 1월 31일(금)까지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psyche77@keis.or.kr)
문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분석센터 ☎ 02-2629-7365
자세한 내용은 고용조사 홈페이지(survey.keis.or.kr) 참조

낱말맞히기

빈칸의 답을 '공감 낱말맞히기 238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12월 30일(월) 오전까지 jjsmail@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 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풀이

1 여러 가지를 모아서 배달하는 사람. "우편○○○, 농어촌 복지 싣고 달린다."
3 이론을 세우는 데 기초가 되는 자료. 관찰이나 실험, 조사로 얻은 정보나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 '국민 중심의 공공 ○○○ 정책.'
4 앉는 자리에 늘 깔아 두는 두툼하게 만든 요.
5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 '우리 ○○에 행복과 희망을 전해 준 이웃들.'
8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 주거나 슬픔을 달래 주는 것.
9 바닷물고기 이름으로 부산 남포동, 충무동에 있는 수산물시장으로 더 알려졌죠.

세로 풀이

1 집이 있거나 있었거나, 집을 지을 자리.
2 원고를 주고 무엇을 받죠?
3 처가에서 데리고 있기로 한 사위.
4 새가 알을 낳거나 깃들이는 곳. 지내기에 매우 포근하고 아늑한 곳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죠. '○○○○ 주택.'
6 생체에서 진행되는 물질과 에너지의 교대 과정 중에서 화학 반응의 경로가 순환하는 부분. 전기○○.
7 어떤 사람의 병을 주로 맡아서 치료하는 의사.

〈위클리 공감〉 236호(12월 9일) '공감 낱말맞히기'
가로 **2** 짠돌이 **4** 문풍지 **5** 웃음 **6** 속내 **8** 연탄 **9** 복덕방
세로 **1** 온돌 **2** 짠지 **3** 이웃 **4** 문단속 **7** 내복 **8** 연방

〈위클리공감〉 236호 낱말맞히기 당첨자
김옥진(부산시 해운대구 좌4동) **김호겸**(경북 상주시 공성면)
박소영(서울시 개포동 주공아파트 6단지)
손철익(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이원빈**(광주시 남구 노대동)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적어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위클리 공감〉 담당자 앞 (우 : 339-012)

"의미 있는 일자리 찾는 데 초점 맞춘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청년고용지수' 도입으로 우수기업 발굴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하는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12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열렸다. 청년위원회(위원장 남민우)는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교육 관련 제도 개선 및 다양한 일자리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은 당사자의 미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풀어야 하는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청년위원회 활동을 담은 동영상이 상영됐다. 또 청년 창업자, 취업준비생 등은 자신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청년 취업 및 창업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개선 방향 등을 토론했다.

청년위원회는 소셜벤처 등 지역의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벤처 창업열기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소수의 안정적인 일자리보다 여러 분야의 의미 있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인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지급하던 200만원(2013년 기준)의 취업지원금을 내년에는 220만원으로 인상하고, 정보통신·전기·전자 업종에도 내년부터 1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실력을 갖춘 고급 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 채용조건부 계약학과'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대학·중소기업 간의 협약을 통해 4년제 대학 졸업자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해당 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졸 취업자 대학진학 땐 국가장학금 우대 지급

이번 대책에는 고졸 취업자들의 '선취업·후진학'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고졸 취업자나 재직자의 대입 특별전형 규모를 2013년 5,580명에서 2016년에는 1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이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우대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고졸 근로자가 군에 입대하더라도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강구한다.

청년위원회는 벤처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특허심판 기간을 9개월(2013년 기준)에서 6개월(2016년)로 단축하고 금융지원 때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창업 실패에 대해 갖는 청년들의 두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창업 실패 시 상담 및 심리치유를 통해 개인별 재기 경로를 분석해주고 지원하는 '재도전지원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부)'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 등 소셜벤처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 중 150억원 규모를 소셜벤처 창업 청년들에게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위원회는 '청년고용지수'를 도입해 기업별 청년고용 규모, 매출액 대비 고용 수준 등을 분석함으로써 우수 기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 지수를 공공정보화 사업 입찰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위원회는 앞으로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위원회 장영규 공공일자리과장은 "지역일자리 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청년의 지역일자리, 주거 등 청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김혜민 기자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1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앞당기기

〈고졸 취업 지원 강화〉
- 고졸 근로자의 경력개발 지원(교육부)
- 고졸 취업 인센티브 강화(국방부, 고용부)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활성화〉
- 일·학습병행제 기반 마련 및 확산(고용부)
-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확대(미래부, 교육부, 고용부)

〈학교에서의 직업·진로교육 강화〉
- 고교생 진로지도 강화(기재부, 교육부)
- 고교 취업지원관 역량 강화(교육부)

〈중소기업 및 창업에 대한 인식 개선〉
- 중소기업 정보확충 및 인식전환(청년위, 산업부, 고용부, 중기청)
- 창업에 대한 도전의식 제고(미래부, 중기청)

2 일자리 만들고 보상시스템 바꾸기

〈기업의 청년고용 노력 촉진〉
- 청년고용지수 도입(청년위, 미래부, 조달청)
- 스펙초월 채용문화 확산 협력 강화(청년위, 교육부, 고용부)

〈중소기업 취업 여건 개선〉
- 중소기업 취업 인센티브 강화(고용부)
- 청년층이 선호하는 산업단지로 혁신(산업부, 고용부)
- 고급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중기청)

〈지역의 청년일자리 활성화〉
- 자치단체·공공기관의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기재부, 안행부, 산업부, 고용부)
- 지역대학·직업교육기관 교육과정을 산업맞춤형으로 확산(교육부)
- 지역일자리 현장 모니터링(청년위, 지역위, 각 부처)

〈지역의 사회적 경제분야 일자리 활성화〉
- 소셜벤처 창업 지원 강화(산업부, 고용부, 중기청)
- 소셜벤처 미니 클러스터 구축(산업부, 고용부)
- 전문가 양성 및 산업분류 개선(교육부, 고용부, 통계청)

〈청년의 해외진출 활성화(K-Move)〉
- 현지 수요에 기반한 해외진출 지원(산업부, 고용부)
- 청년 해외진출 지원인프라 강화(산업부, 고용부)
- 현지진출 청년의 정착 지원 확대(외교부, 산업부, 고용부)

3 청년의 창업 열기 되살리기

〈청년 창업 기회 확대〉
- 청년창업 지원 확대(중기청, 특허청)
- 창업 관련 재정·세제지원 방식 개선(기재부, 중기청)
- 청년인재 벤처기업 근무기회 제공(미래부, 중기청)
-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중기청, 조달청)

〈창업 재기시스템 구축〉
- 청년기업가 연대보증 개선(기재부, 금융위, 중기청)
- 창업 실패자에 대한 지원 강화(미래부, 중기청)

자료·청년위원회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강화 돕겠다"

박 대통령 "정상외교 MOU 협정 등 성과정보 DB화해서 중소기업에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글로벌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정상외교 때 체결한 MOU 협정 등의 성과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기업들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영업망을 확충해 나가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중소·중견기업들에 새로운 해외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드리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월 19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글로벌 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활성화를 목표로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중소·중견기업인 77명과 만나 의견을 듣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경제 사절단으로 참여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323만개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수출기업은 8만6천개에 불과한데도 이들이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며 "수출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전선에 나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부흥의 새로운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상외교에서 체결한 MOU 협정 등의 성과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기업들에 제공하겠다"며 "각 지원기관과 단체들이 사업 기회를 적극 알선·중개하도록 하면서 국가별·분야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세일즈 외교의 결과로 확장되는 글로벌 사업 기회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는 의미다. 또 해외 순방의 외교·경제적 성과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 활성화로 연계, 실질적인 경제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7개국을 순방했고 11개국 정상이 우리나라를 찾았다. 그 결과 8개의 정상공동성명을 발표했고 경제분야에서 62건의 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해외 인프라 건설사업, 교역 관련 장벽 완화 등의 혜택과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기업이 이해하기 쉽도록 향후 DB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 관련부처, 지원기관의 금융·인력양성 등의 시책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계획들이 큰 성과로 이어지려면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반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12월 17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고, 이번 중소기업 간담회에서는 대기업과의 협력과 글로벌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의미를 담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과의 동반 (해외)진출은 해외 정보와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에 안정적인 해외 진출 방법의 하나일 것"이라며 "정부도 금융을 비롯해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

글·이창균 기자

"고운 말 사용, 저부터 앞장설게요"

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 출범식… "말과 글은 생각과 혼을 담는 그릇"

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 출범식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두번째줄 가운데)는 배우 안성기, 아이돌그룹 카라, 개그맨 김준호 등 홍보대사들과 함께 바른 말 쓰기 운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야, XX 웃긴 건 그 XX가 내 어깨를 치고 지나간 거야~XX."

"XX, XX 짜증난다."

영상에서는 폭력적인 욕설로 가득한 중학생 세 명의 대화를 보여줬다. 비속어를 '삐-' 처리하니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10분의 대화에서 올바른 단어는 겨우 9개였다.

12월 1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린 '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 단체' 출범식에서는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자는 각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 출범식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융성위원회, 범국민연합 및 관련 부처 주최로 진행되는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안녕! 우리말'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첫번째 행사였다. 강당을 가득 메운 출범식에서는 국악무대를 시작으로 선언문 낭독, 한글문화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은 국민의 국어의식을 일깨우고 바람직한 언어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운동이다. '안녕! 우리말'은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출범식 축사에서 "우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말과 글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며 "이런 시기에 자발적인 범국민적 언어순화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도 공공분야 언어와 방송·인터넷 언어, 청소년 언어를 순화하기 위해 제도와 교육을 비롯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는 사회를 풍성하게 하는 문화융성의 핵심"이라며 "바른 말, 고운 말, 품격 있는 말로 국민과 나라의 격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우 안성기 씨 등 '우리말 수호천사' 홍보대사 위촉

한편 이날 출범식과 함께 '우리말 수호천사' 홍보대사 위촉식도 진행됐다. 영화배우 안성기 씨, 인기 아이돌그룹 카라의 박규리·한승연 씨, '한글춤 창시자' 이숙재 교수 등 문화예술인 8명과 KBS, MBC, SBS를 포함한 주요 방송사 아나운서 11명이 위촉됐다.

'디지털 한글나무 키우기'라는 이색 체험도 마련됐다. 한요한 미디어 예술가가 만든 디지털 한글나무가 스마트폰을 통해 입력되는 언어에 따라 자라거나 죽는 시스템이다. 바른 말을 입력하면 자라고 비속어 등을 입력하면 죽는 식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 자연스럽게 언어 사용에 대한 관심 촉발을 위해 만든 작품이다.

프로그램을 체험한 김성지(31) 씨는 "제가 사용하는 언어 하나에 제 한글나무가 죽거나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책임감이 생기네요"라며 신기해했다.

앞서 '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 권재일(서울대 교수) 공동대표 등은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말과 글은 생각과 혼을 담는 그릇으로 사회정체성의 근간이자 문화융성의 토대"라며 "우리 말글을 가꾸는 길에 함께 나아가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G

글·박지현 기자

“철도 민영화 않는다… 노조, 업무 복귀를”

정홍원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 “불법파업 지속은 기득권 지키기”

연합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철도노조에 업무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철도노조에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정 총리는 12월 18일 열흘째 계속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노조의 불법파업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 총리는 “철도노조는 불법파업으로 국민의 지탄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공사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협력해 국민의 신뢰와 박수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노조원 여러분은 즉시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금 불법파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철도 운행이 줄어들면서 국민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건설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지난 (12월) 16일 대통령께서 ‘철도 민영화는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고 저도 국회와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으며 관계부처 장관들도 국민 앞에 약속을 했다”며 “이처럼 정부가 누차에 걸쳐 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2월 9일 수서발 KTX 자회사가 철도공사의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철도공사가 10일 코레일 이사회에서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의결하면서 노사간 갈등은 불거졌다.

정부와 코레일은 “민간회사의 참여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해 더는 민영화 관련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지만 노조는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맞서며 10일 이상 최장기간 파업에 들어갔다.

철도 파업이 길어지면서 전체 열차운행률이 평시 대비 80퍼센트대로 급감해 운송 및 물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글·박상주 기자

중앙포토

철도노조 파업으로 열차가 운행되지 않은 12월 17일 경북 포항시 괴동역에 포스코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출하를 못해 쌓여 있다.

“경쟁력·고객서비스 위한 최선책”

운행횟수 하루 90회 증가… 직원 신분·근로조건 변화 없어

최근 불거진 철도 민영화 논란은 철도공사가 추진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바라보는 시각차에서 비롯됐다.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철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독일식 모델을 응용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려는 철도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이다. 기본 방향은 철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가 견실한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화된 구조로 재탄생된다. 부문별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화물(2014년)·차량정비(2015년)·시설유지보수(2017년) 등의 분야가 단계적으로 자회사로 분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여객 위주로 운영하면서 지주회사 기능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자회사 및 지주회사로 바뀌면 철도 운영은 철도공사를 중심으로 공영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수서발 KTX는 철도공사의 운영노하우를 활용하면서 합리적인 구조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도공사 출자회사로 운영된다. 철도공사는 재무 여건을 고려해 공공부문 자금으로 수서발 KTX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민간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정부가 공익서비스 보상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도 철도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철도공사는 현재 17조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운영과 건설부문을 합해 철도산업이 가진 부채는 35조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1996년과 2005년에 누적 철도 부채를 각각 1조5천억원씩 총 3조원을 탕감해 주고 철도공사는 2005년 1월 부채비율 51퍼센트의 건전한 구조로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평균 7,500억원의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5,700억원의 영업적자가 누적돼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2013년 6월 현재 부채비율은 435퍼센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구조로 운영되면 철도 부채는 2020년이 되기 전에 50조원을 넘어서게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게 됩니다.”

수서발 KTX를 분리 운영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쟁을 도입해 철도공사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철도는 오랜 독점하에서 여객, 물류, 차량정비, 시설유지보수 등 다양한 기능이 뒤섞여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회계가 불투명하고 비교 대상이 없어 경영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현재의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경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영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철도공사가 비교 대상으로 수서발 KTX 회사를 설립, 내부 경쟁을 통해 경영을 개선하고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철도공사가 통합 운영하면 수익을 확대하는 데 더 유리하지 않나요?

“수서발 KTX를 분리해 경쟁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철도공사의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철도산업 전체의 경쟁력 제고에 바람직합니다. 통합 운영하면 건설 부채(2013년 17조9천억원)는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통합 운영이 전체적인 수익구조로 볼 때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수서발 노선은 고효율 구조에서 얻는 수익을 통해 철도건설 부채를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철도 운영과 건설의 상생구조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서울·용산발 KTX 수요가 수서발 KTX로 옮겨가면 철도공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수서발 KTX는 철도공사 사업을 분할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서발 KTX 개통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선로 용량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수서발 KTX 개통 초기를 예상해 보면 철도공사 수요는 하루 1만~2만명 정도의 감소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철도공사의 매출이 일부 감소할 수 있겠지만 이는 수서발 회사로부터 받는 차량임대, 정비, 역사운영 위탁수입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중앙포토

철도노조 파업 10일째인 12월 18일 서울역 대합실 모습.

수서발 KTX가 분리 운영되면 요금이 오르거나 서비스가 나빠지지 않나요?

"경쟁을 도입하면 요금이 낮아지고 서비스가 좋아집니다.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철도 이용자가 늘고 경영수지가 개선되면 철도 스스로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수서발 KTX는 요금이 서울역 대비 10퍼센트 정도 낮아지며,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KTX와의 고객 유치 경쟁으로 요금이 오르는 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수서발 KTX는 어떻게 운영되고 철도공사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2016년부터 수서~부산·목포 노선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철도공사는 지금과 같이 서울역과 용산역을 출발하는 KTX를 운행하게 됩니다. 수서발 KTX가 운영되면 운행횟수가 하루 90회 증가합니다.

철도공사는 41퍼센트 이상의 지분으로 참여(공공부문 59퍼센트)하고, 경영지배권도 보유하게 됩니다. 참여 지분은 모두 공공부문으로 구성되며 민간 자본은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2016년 영업을 개시해 철도공사가 흑자구조로 전환되면 연 10퍼센트포인트 내에서 지분을 추가 확보해 최종 100퍼센트 지분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공공자금의 민간 매각은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민간매각 제한을 수용하는 공적자금 유치, 정관·주주협약에 민간매각 제한 명시, 철도사업 면허 조건 등 겹겹이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철도공사의 동의 없이 지분을 매각할 경우 원천무효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는 법률 검토 결과 현행법상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입니다."

부문별 분리 경영은 민영화의 전 단계가 아닌가요?

"철도공사 부문별 자회사 설립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 강화를 통해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사업부문별 통합 운영에 따라 서비스별 원가구조, 경영진단, 비효율에 대한 원인 진단이나 대책 마련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물류·차량·시설유지보수 자회사는 철도공사가 100퍼센트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민영화가 아니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서발 운영사 설립으로 선로 등 기반시설이나 철도공사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습니다. 철도공사는 공사 형태로 계속 존속합니다. 수서발 운영사는 철도공사가 경영지배권을 행사하는 자회사로 참여 지분도 모두 공공부문으로 구성됩니다. 민간 자본이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자회사로 분사되면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나요?

"철도공사 직원의 신분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분리되는 자회사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도 현재와 같은 근로조건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철도공사의 적자구조가 계속된다면 철도공사의 인력은 계속 줄어들고, 근로조건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회사 분사 등으로 경영 여건이 개선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처우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회사로 분사되면 철도 안전관리가 약화돼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철도 안전은 '운영을 누가 하는지'와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철도 안전체계 정비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해 보다 더 안전한 철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수서발 KTX는 초기에 차량·시설유지보수 등을 철도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의 철도공사 수준으로 안전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운영자에 대한 철도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해 안전이 미흡할 경우 사업부문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6년 고속철도 운영노선도

경쟁체제를 도입한 다른 사례에서는 어떤 효과가 나타났나요?

"우리나라 공항운영기관을 보면 경영·운영상의 경쟁을 통해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근로 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우리 공항을 세계적 공항으로 육성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서비스부문에서 8년 연속 세계 최우수 공항, 한국공항공사는 중형공항부문 3년 연속 최우수 공항이 되는 등 크게 발전했습니다. 2002년 적자이던 공항운영기관은 경쟁체제를 도입한 뒤인 2012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독일, 스웨덴 등도 철도 개혁 이후 만성적인 영업적자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2011년)와 이탈리아(2012년) 등에서는 운영 경쟁 후 2분의 1~3분의 2가량 요금 인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G

정리·박상주 기자

과학기술 '손톱 밑 가시' 뿌리 뽑는다

의료용 앱 등 18개 규제개선 과제 선정… 창조경제 걸림돌 제거

'2013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에서 관람객들이 한 자동차회사가 만든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의대 교수인 A씨는 암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해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했다. 보건당국은 A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기기로 분류해 앱을 배포할 수 없도록 막았다. 현행법상 의료용 앱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개발해도 배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동차회사인 H사는 올해 3월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차에 수소를 충전할 충전소가 부족해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국내에 있는 수소충전소는 모두 13개이다. 현행법상 수소충전소의 수소저장용기에는 금속 재료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속 재료로 된 수소저장용기는 구하기 쉽지 않아 수소충전소 구축을 늘리기는 힘든 상황이다.

앞으로는 이처럼 새로운 기술의 제품화와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부처와 함께 '과학기술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비효율적인 과학기술규제를 개선해 창조경제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에 앞서 미래부 등은 70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기존 문헌 분석 등을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찾았다. 그중 타당성,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4대 분야에서 총 18건의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연구개발 4건, 사업화 5건, 창업 3건, 인프라 6건 등이다.

위의 두 사례는 사업화와 새로운 시장 창출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경우다. 이에 대한 규제 개선도 이뤄지게 됐다. 모바일 의료용 앱은 판매업 신고를 면제해 진입 장벽을 낮춘다. 질병 진단 등 모바일 의료용 앱 개발을 활성화하고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의료용 앱의 잠재적 위해요소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의료용 앱의 최소요건,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의료용 앱뿐 아니라 IT 기술 기반의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다양한 기술과 의료기술을 융합해 질병 예방, 진단, 치료, 사후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이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기 허가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해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수소충전소의 수소저장용기에 대한 기준도 정비한다. 현재 금속 재료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소저장용기 재료에 복합재료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복합 재료가 허용되면 수소저장용기를 구하기 쉬워져 수소충전소 구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수소충전소가 많아지면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시장이 커질수 있는 환경 중 하나가 마련되는 것이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과학적·기술적 데이터에 기반해 수소저장용기재료의 사양, 최소 안전율 등 검사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연구비 집행 간소화·이중점검 해소… 사후관리도 철저

창조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선과제도 눈에 띈다. 대표적인 것이 연구비 집행의 간소화다. 연구비를 사용하는 데 지나치게 경직적인 제한이 있어 연구현장에서 불편을 느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바꾸기 위해 10만원 이하의 소액집행 회의비에 대해선 영수증만으로 집행할 수 있게 바꿔 행정부담을 줄였다.

컴퓨터, 프린터 등 장비 구입도 기존에는 연구비로 구매가 불가능했지만, 연구기관장 승인 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과학기술 혁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과제에 포함됐다. 과학기술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전공제한이 완화됐다. 연구전담요원은 그동안 이공계 전공자만 될 수 있었다. 규제 때문에 과학기술과 인문·사회·디자인 등 접목을 막아 고부가가치를 지닌 융합제품을 기획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곤 했었다.

이에 따라 비이공계 전공자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계 기관과 산업계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완화시킬 전공 분야를 선정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중인 연구실의 이중점검 문제도 개선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부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현장 점검을 다시 받는 이중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두가지 법 중 하나의 법률만 적용토록 조정돼 행정부담이 줄게 됐다.

내년부터는 18개 과제에 대해 부처별·과제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G

글·남형도 기자

과학기술 규제개선 추진과제 및 주관 부처

추진과제	주관 부처
1.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조성(4개)	
①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정비	미래부
② 네거티브 방식기준의 연구비 관리 마련	
③ 연구비 집행 간소화	
④ 유사·중복 행정절차 통·폐합	
2. 신산업·신시장 창출(5개)	
신산업 진입규제 해소	
⑤ 모바일 의료용 앱 규제정비	식약처
⑥ 수소충전소용 저장용기 기준정비	산업부
⑦ 방위산업 분야 국산SW 역차별 제도개선	방사청
⑧ IT융합 의료기기 규제완화	미래부
⑨ 개인정보보호체계 정비	미래부 등
3. 기술창업 촉진(3개)	
⑩ 연구소기업 설립 및 운영제도 개선	미래부
⑪ 연구개발서비스업 규제개선	미래부
⑫ 협동조합 및 1인 창조기업의 R&D참여제한 완화	미래부
4. 과학기술혁신인프라 강화(6개)	
안전규제 강화	
⑬ 나노물질 인증 및 평가체계 구축	산업부·환경부
⑭ 시험성적서 원본제출 의무화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출연(연) 규제개선	
⑮ 출연(연) 정원관리 합리화	기재부·미래부
기업 기술인력 규제개선	
⑯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전공제한 완화	미래부
법령 적용·해석	
⑰ 연구실 안전 관련 현장 이중점검 해소	미래부
⑱ 출연(연) 기본사업비 집행기준 마련	미래부

자료·미래창조과학부

‘13월의 월급’ 확실하게 챙기자

월세 소득공제 50퍼센트로 확대… 대중교통 공제율 30퍼센트 항목도 신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대중교통비에 대한 공제한도가 100만원 추가된다.

자주 묻는 연말정산 관련 Q&A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 형편상 따로 살지만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장인·시부모 포함)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는 게 가능한가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또는 자녀,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공제 대상입니다.

20세가 넘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 대상인가요?
만 20세가 넘은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A씨는 현금을 쓸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겼다. 직장인 B씨는 A씨와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로 썼다. 지난해 기준이라면 둘 다 20퍼센트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같다. 올해는 둘 중 누가 더 유리할까. 변경된 기준에 따라 A씨는 현금영수증에 대해 30퍼센트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B씨는 15퍼센트의 신용카드 공제율을 적용 받는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보다 소득공제를 보다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 달라진 기준 때문이다. 지난해보다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확대되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축소됐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다. 빠짐없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증빙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주택 월세 소득에 대한 공제율이 달라졌다.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됐다. 현금영수증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축소됐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은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확대됐다. 부동산 임대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도 달라졌다.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됐다.

국민주택규모란 수도권 기준 85평방미터, 그외 읍·면지역 기준 10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단, 올해 8월 13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분 중 대중교통비 사용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한 것도 새로 바뀐 점이다.

대중교통비 공제율도 30퍼센트로 항목 자체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지난해 최대 4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으로 늘었다.

초·중·고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취학 전 어린이를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과 교재구입비, 급식비 역시 공제 대상이다. 다만 교재구입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만 대상을 제한했다. 개별적으로 구입할 경우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공제받아야 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과 ‘싱글대디’의 경우 100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연 50만원인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만 적용된다.

고소득자가 과도하게 소득공제받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제한한다. 보험비·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 등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한다.

단, 장애인 관련 보험료·의료비·특수교육비는 소득공제 한도 제한이 없다.

글·남형도 기자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현금영수증 공제율	20%	30%
대중교통비 공제한도	100만원 추가(신용카드 공제한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	
월세 소득공제율	40%	50%
월세 소득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범위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 2013. 8. 13 이후 지급 월세부터 공제 가능)	
초·중·고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	공제대상 포함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과정 및 교재구입비, 급식비	공제대상 포함	
싱글맘·싱글대디 추가공제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 있는 싱글맘·싱글대디 100만원 추가공제	
고소득자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으로 제한 (단, 장애인 관련 보험료·의료비, 특수교육비는 한도 계산에서 제외)	

연말정산, 꼭 미리 챙기세요!

항목	내용
월세공제는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주택 월세 소득공제 받으려면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거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거지가 같도록 전입신고
변경된 휴대폰 번호 등록	휴대폰 번호 변경된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26-2번)에서 전화번호 변경
성년이 된 자녀는 자료 제공 동의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성년 자녀의 소득 공제 증명서류 조회하려면 자녀가 소득공제 자료 제공에 동의 필요
T(티)머니 교통카드는 번호 등록	티머니 교통카드는 관련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카드로 카드번호 등록

자료 · 국세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작한 문화융성이 벌써 꽃을 피우고 있네요.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이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어르신들이 난생 처음 공연장을 찾아 근사한 공연을 볼 수 있게 되고 예술가들은 생활고 없이 예술에 매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각 지방에서 인문학이 부흥하고, 집 주변에서도 좋은 스포츠 시설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일고 있고, 연 1천만명 넘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역시 문화가 힘이 되는 시대입니다.

문화가 있는 삶, 국민행복의 길 열다

'문화기본법' 제정, 국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대 마련

일러스트·이철원

2013년 대한민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문화활동이 전개됐다.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열렸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활동도 크게 늘었다. 다양한 문화상품을 발굴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한 덕에 한국을 찾은 외래관광객도 크게 늘었다. 2013년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총체적 성과를 살펴봤다.

올해 문화예술정책에서 주목할 점은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활동이 크게 늘어난 점이다. 문화이용권 이용자가 160만명을 넘어섰고, 노년층 문화프로그램과 수혜자 수도 지난해 341개 1만1,804명에서 올해 379개 1만2천명으로 늘어났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아이들에게 옛이야기와 선현들의 미담을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가 작년 374명에서 917명으로 늘어난 것도 좋은 예다.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도 활성화됐다. 2,100여 개 문화취약지역 54만명의 주민에게 공연프로그램을 제공했고 '사랑티켓' 제도를 통해 45만명의 아동·청소년 및 노인에게 공연·전시 관람을 지원했다.

국민참여 프로그램이 크게 늘어난 데는 실질적인 정부 정책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융성'을 정부 국정기조로 밝혔고 이는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출범으로 이어졌다. 김동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정경화, 안성기, 박정자, 송승환 등 문화예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출범 후 전국을 돌며 각 지역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 문화예술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문화융성 정책과제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통해 올해 문화예술정책의 가장 큰 이슈인 '문화기본법'을 제정할 수 있었다. 이 법은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해 헌법을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문화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의 개념을 국민의 삶의 질, 국민행복의 가치로 확장한 의의가 있다.

보다 강력해진 문화정책의 시행을 통해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려는 노력에도 힘이 실렸다.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첨병인 한국문화원이 태국, 벨기에, 브라질에서 새로 문을 열었다. 이로써 한국문화원의 수는 23개국 27개소로 확대됐다. 또한 대통령 해외순방을 계기로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의 백남준 미디어아트 전시회, 베트남 한복·아오자이 패션쇼, 프랑스 한류팬 미팅, 런던 국제한국영화제 등을 개최함으로써 미술, 한복,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세계에 알렸다.

외래관광객 1,200만명 육박·생활체육 확산

한국을 알리려는 다양한 노력은 역대 최대 외래관광객 유치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천만명을 돌파한 외래관광객은 2013년 11월 말 기준으로 이미 1,120만명을 넘어섰고 12월 말에는 1,20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외래관광객의 편안한 한국 관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관광숙박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소형호텔업을 신설했고, 호스텔업에 대한 입지 제한을 완화했다. 외래관광객의 불편을 덜어주고 외국인 대상 불법행위를 단속·예방하기 위해 관광경찰 제도도 도입했다. 영어·일본어·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관광경찰 101명은 서울 시내 주요 관광지 7개 지역에 배치됐다. 이들은 출범 50일 만에 7천여 건의 민원을 해결해 외래관광객의 호평을 받았다.

2013년은 체육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문체부의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는 슬로건처럼 스포츠가 국민행복을 증진하고 사회·경제·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한층 넓힌 한 해였다.

2017년 U-20 월드컵 유치에 성공했고 2020년 하계올림픽 핵심 종목에 태권도가 포함되는 쾌거를 이뤘다. 문체부는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G

글·조용탁(이코노미스트 기자)

문화융성으로 확 달라진 대한민국

- **한국 찾은 외래관광객**
  2012년 1,000만명 → **2013년 1,200만명 예상**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수혜는 장애인**
  2012년 65만6,856명 → **2013년 83만8,153명**
- **국가 관광경쟁력**
  2011년 32위 → **2013년 25위**
-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2012년 374명 → **2013년 917명**
- **세종학당**
  2012년 43개국 90개소 → **2013년 51개국 117개소**

자료·문화체육관광부

흥행 약진 한국영화, 사상 처음 관객 2억명 돌파

국내 영화시장이 2억 관객 시대를 열었다. 12월 18일 영화진흥위원회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올해 영화 관객이 이날 사상 처음으로 2억명을 돌파했다. 이 같은 국내 영화시장 확대에는 한국영화의 역할이 컸다. 한국영화는 지난해 처음 1억 관객을 넘어섰고, 지난달 이미 지난해 총 관객 수(1억1,461만3,190명)를 추월했다.

전체 흥행 순위에서도 한국영화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한국영화는 〈7번방의 선물〉과 〈설국열차〉 〈관상〉 등 8편이 10위 안에 올랐다. 외화는 〈아이언맨 3〉(4위)와 〈월드워 Z〉(10위)만이 톱10에 진입했다.

극장 매출액도 지난해(1조4,551억원)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7일까지 총 매출액은 1조4,547억원이다. 송강호의 〈변호인〉과 공유의 〈용의자〉 등 화제작들이 연말 극장가에 포진하고 있어 올해 사상 첫 1조5천억원 돌파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늘진 곳에 '문화의 불씨' 지폈다

찾아가는 공연 '신나는 예술여행'—관람료 지원 '사랑티켓' 통해 문화 대중화에 기여

타악 연주단체 '비트컴퍼니 한울소리'는 지난 11월 23일 강원도 춘천의 밀알재활원을 찾아가 난타, 마술, 무용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지난 11월 23일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밀알재활원에서는 특별한 공연이 열렸다. 타악 연주단체 '비트컴퍼니 한울소리'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공연'을 선보인 것이다. 이날 10명의 단원들은 재활원의 지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난타, 무용, 마술 공연을 했다. 난타 공연은 플라스틱 상자, 플라스틱 드럼통 등을 악기로 한 '재활용'을 컨셉트로 했으며 마술 무대는 고리, 비둘기를 이용한 공연으로 꾸며졌다.

공연팀이 이날 선보인 무대는 밀알재활원 장애인들을 위해 구성된 '맞춤형 공연'이었다. 밀알재활원 백승현 사회지원팀장은 "공연팀들이 공연을 오기 전에 어떤 무대를 선보이는 게 좋겠느냐고 미리 물어왔다"며 "재활원 가족들이 좋아할 만한 공연을 미리 귀띔해 줬다"고 말했다.

비트컴퍼니 한울소리 곽재민 기획실장은 "저희 공연팀은 사회복지관들을 찾아다니며 문화공연을 자주 한다"며 "대상자에 따라 공연 내용에 변화를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공연은 지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쉽고 재미있는 공연'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곽 기획실장의 이야기다.

"공연을 하기 전 재활원 관계자 분들이 아무래도 지적 장애인들이다 보니 반응을 크게 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너무 상처받지는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약간 걱정도 했는데 웬걸요. 공연이 끝나고 몇몇 장애인 분들은 흥에 겨워서 무대에 나와 함께 춤도 추고 그러셨어요. 괜히 걱정했다 싶기도 하고, 정말 뿌듯했죠."

밀알재활원에는 현재 만 18세부터 60세까지 모두 50명의 지적 장애인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백승현 팀장은 "비트컴퍼니 한울소리처럼 공연팀들이 재활원을 방문해 공연을 선보이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50명이나 되다 보니 외부에 나가서 공연을 보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다는 게 백 팀장의 설명이다.

"시간도 그렇고, 이동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찾아와 주시면 아무래도 편하게 문화공연을 볼 수 있으니 좋습니다. 또한 저희 재활원의 경우 단체생활을 하다 보니 각자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직업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서 오는 압박감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문화공연은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보다 쉽고 편하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비트컴퍼니 한울소리가 밀알재활원에서 문화공연을 펼친 것도 바로 이러한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함께 2004년부터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을 펴고 있다. 문화예술단체들이 엄선된 양질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가지고 문화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과 계층을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이는 사업이다. 2004년부터 문화예술단체들은 군부대, 교정시설, 장애인시설 등 전국의 문화취약지역을 찾아가 400여 만명가량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선보였다.

청소년·어르신들 41만여 명 저렴하게 공연·전시 즐겨

또한 정부는 공연·전시 관람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및 24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관람료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

'사랑티켓'은 공연 및 전시 관람료의 일정 금액을 복권기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좋은 공연을 보고 싶지만 비싼 관람료 때문에 망설이는 취약계층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41만여 명의 청소년 및 어르신들이 '사랑티켓'으로 공연 및 전시를 관람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문화를 통한 세대간 소통과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을 펼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학진흥원은 지난 3월부터 전국 2,680개 유아교육기관에 '이야기 할머니' 917명을 파견했다. '이야기 할머니'들은 지역의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옛이야기와 미담을 들려주며 아이들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민호 지역민족문화과장은 "앞으로 이 사업 등을 비롯해 어르신들이 삶의 지혜를 미래 세대와 나눌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G

글·김혜민 기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문의 한국국학진흥원 www.koreastudy.or.kr

신나는 예술여행

분류	수혜대상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을 기초로 한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아동양육시설, 복지센터 등)
농·산·어촌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농·산·어촌 지역 및 학교, 기차역사 등(광역시 내 '군' 단위, 농촌형 및 준농촌형 지역은 신청 가능)
임대주택	주택관리공단·SH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다문화대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주민지원센터 등
교정시설	전국 교정시설, 구치소, 보호관찰소, 소년원
군부대	육·해·공군 대대급 부대
기타시설	위 유형 외 특수계층 및 시설지원

자료·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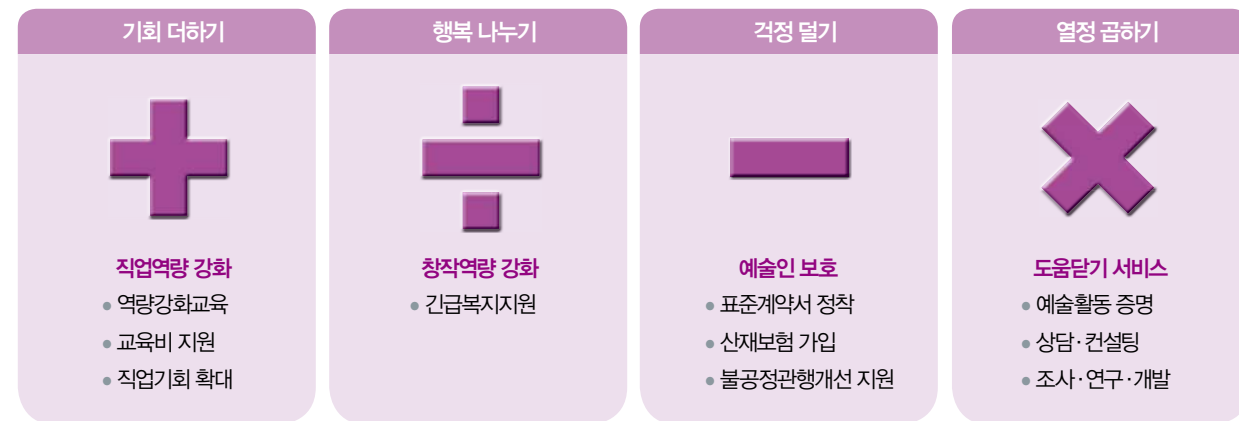
홈페이지 www.artstour.or.kr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070-4264-3601~3, 02-586-0371, 02-586-0363

'사랑티켓' 지원 내용

지원금 공연 7천원, 전시 5천원
자격 24세 이하(1989년 이후 출생), 65세 이상(1949년 이전 출생)
지원규모 공연·전시 연 10장
홈페이지 www.sati.or.kr
연락처 ☎ 070-4264-3616

창작활동에 전념할 물질적 지원 착수

창작준비지원금 지급·맞춤형 교육·산재보험 가입 등 다양한 혜택 제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체계

오석근 작가는 한국 사회를 주제로 사진 및 설치미술 작업을 하며 올해로 9년째 작가로 활동 중이다. 하루 종일 창작에 매달려도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는 "작업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작가들이 작품활동만 해서 생활비를 벌기는 어렵습니다. 예술가들에게 '알바'는 필수입니다. 특히 사진, 설치작업의 경우 준비하는 데 돈이 많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사진 촬영을 하며 돈을 법니다. 작업을 하려면 돈을 버는 게 당연한데 그래도 작업할 시간을 빼앗길 때는 좀 아쉽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술인들은 직업의 특성상 수입이 규칙적이지 않으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창작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기본적인 경제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7월 19일 발표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방안'에 따르면, 예술인 3명 중 2명이 창작활동과 관련해 한 달 평균 수입이 100만원 이하이며 창작준비를 하는 기간에도 아르바이트 등 부수입을 벌기 위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최근 오 작가는 오랜만에 작업활동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5개월 동안 한 달에 60만원씩 '창작 준비 지원금'을 받게 된 것이다. 오 작가는 "이 기간 동안은 아르바이트에 신경 쓰기보다 작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가 이러한 도움을 받게 된 것은 '예술인복지법'의 덕이다. 2011년 말 제정된 '예술인복지법'은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 12월 10일에는 예술인의 산재보험료 지원,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제재 등을 규정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인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창작 준비 지원금' 제도는 예술가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창작 준비 기간에도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시작됐다. 예술적인 재능과 창작능력이 뛰어나지만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창작에 전념하기 어려운 예술인들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정부는 예술가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선보이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에 걸쳐 실시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그렇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예술단체들은 단체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받아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문화예술 모임 '네시이십분'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네시이십분'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팟캐스트도 녹음하는 예술가 10명이 만든 모임이다. 이 단체는 3개월 동안 '이 시대의 예술가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예술단체들의 문화예술 프로젝트에 지원금도

'네시이십분' 팀원인 준(장혜령 씨)은 "많은 이들이 예술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하지만 정작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들이 모여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예술인복지법'이 마련되면서 예술인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가 예술활동을 근로활동으로 인정하고 이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예술활동 계약이 이뤄진 상태에서 계약기간 중에 일어난 재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기술 스탭이 무대 세트를 설치하거나 영화를 촬영하는 중에 다치게 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에게 장르별 '표준계약서'의 견본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무계약·구두계약 등과 같은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고 예술활동의 보호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다. 표준계약서에는 보수 금액뿐 아니라 예술인들의 복지에 영향을 주는 고용계약 형태가 명시되고, 최저 노동조건 및 최소한의 계약지침 등이 담겨 있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계약서 조항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문 변호사나 컨설턴트를 위촉해 상담·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G

글·김혜민 기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www.kawf.kr

예술인 산재보험이란?

예술활동을 근로활동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예술활동 계약이 이뤄진 상태에서 계약기간 중 일어난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

보장 혜택

요양급여 : 치료비를 건강보험진료수가 내에서 지원

휴업급여 : 요양기간 중 생활유지를 위해 평균임금의 약 70% 지원

※ 모든 보장 혜택은 4일 이상 입원·통원하는 경우 해당

가입방법

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예술활동 증명, 2 산재보험 가입 신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근로복지공단: 3 산재보험 가입 대행

근로복지공단 ← 예술인: 4 불의의 재해 발생시 보상 신청

예술인산재보험 가입과 보상신청

자료·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립중앙치매센터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중 하나인 제1회 치매극복 실버합창대회 모습.

내 곁에 온 교육기회… "놓치면 손해!"

젊은 직장인부터 어르신까지 215만명 혜택… 국민 행복지수 높아져

'띠링띠링~ 띠링띠링~.'

익살스러우면서도 어딘가 낭만적인 소리를 만들어내는 악기. 서울 구로동의 한 교육전문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김은희(26) 씨는 올 들어 '우쿨렐레(Ukulele)'에 푹 빠졌다. 우쿨렐레는 미국 하와이를 대표하는 전통 악기다.

어릴 적부터 악기 하나를 능수하게 다루는 게 목표였던 김 씨는 바쁜 직장생활 틈틈이 우쿨렐레를 익힐 수 있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마련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게 계기였다.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우쿨렐레를 배우고픈 관내 직장인을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고 지원했죠. 저까지 15명이 모여서 팀을 이뤘고 공단에서 전문 강사님을 초빙해 주었어요. 5월부터 6개월간 직장 업무 후 여가시간에 틈틈이 배웠습니다. 이제는 제법 난이도 있는 곡들을 연주할 수 있게 됐어요."

김 씨의 팀에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직장인이 모여 있다. 우쿨렐레를 배우면서 남녀노소 다들 친해졌다. 모두 바쁜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의 향취를 누리기를 꿈꾸던 사람들이다. 지난 11월 21일에는 특별한 일도 있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시흥비즈니스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3회 산업단지 아티스트 행복 페스티벌'에 참가, 우쿨렐레 경연에 나선 것이다.

"인기 가요인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등을 연주했는데 관객들이 많이 호응해 주셔서 참 뿌듯했어요. 사실 수업 때는 더 어려운 곡들도 많이 익혔는데 공연이라 쉬운 곡 위주로 연주했어요."

김은희 씨 팀은 특별상으로 상금까지 받아 겹경사를 맞았다. 부인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한 팀원의 제안으로 조만간 우쿨렐레 연주 봉사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산업단지공단은 우쿨렐레 외에도 지부별로 합창이나 풍물, 마술 등 이색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희망자는 누구나 자유로이 신청해서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다. 2011년부터 올해로 3회째, 매년 말쯤 열리는 '산업단지 아티스트 행복 페스티벌'은 그동안 김 씨처럼 교육에 성실히 참여했던 단지 내 근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사다. 현장에서 한창 일하는 연령대 근로자들로서는 일상에 활기를 더하는 순간이다.

산업단지공단 사회공헌팀 박현정 과장은 "초기엔 페스티벌에 6개 산단 근로자들만이 참가했는데 점점 호응이 뜨거워져 올해는 전국 9개 산단에서 400여 명이 참가했다"며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협업해 근로자들이 문화예술로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창으로 활력 되찾아 너무 행복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융성 원년'을 맞아 강화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이 곳곳에서 행복지수를 높이고 있다. 노인세대 또한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전국 각지에서 시·도별 노인종합복지관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진행 중인 '청춘연극제'나 '실버합창대회' 같은 프로그램이 대표적 사례다. 전국에서 어르신 6,400여 명이 문화예술교육으로 삶의 활기를 되찾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6개월간의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김은희 씨 등 우쿨렐레 연주팀이 지난 11월 한 페스티벌에 참가해 공연을 펼치고 있다.

대전에서 맏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강명자(68·가명) 할머니는 올 9월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17회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에 실버합창단 일원으로 참가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정년퇴임한 이후 한동안 우울증을 겪기도 했던 강 할머니는 최근 합창으로 활력을 되찾았다.

"처음엔 '어르신들끼리 맛있는 음식이나 드시면서 편히 계시지 무슨 노래냐'며 핀잔하던 자녀들이 이젠 대회 때 응원하러 올 만큼 열정적이에요. 마음처럼 합창이 잘 되지는 않지만 문화예술활동을 계속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겁고 행복합니다."

노년층의 이 같은 문화예술활동은 종종 의학적 효과로도 이어진다. 해마다 '치매극복의 날' 행사를 마련하는 국립중앙치매센터는 실버합창대회를 열어 어르신들이 노화에 따른 기억력 감퇴를 극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합창을 위해 가사를 익히고 어르신들끼리 담소를 많이 나누는 과정 자체가 치매 예방의 촉매제가 된다.

이밖에 문체부는 전국 초·중·고교의 63퍼센트인 7,254개교에 예술강사 4,500명을 파견해 210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했다. 한국무용, 공예 등 다채로운 분야에서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부분들을 배움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껏 215만여 명의 아동·청소년·성인·노인이 혜택을 받은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은 앞으로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G

글·이창균 기자

칠곡군에 인문학이 활짝 피었습니다

지역밀착형 인문학운동… 한글·리더교육과 마을 신문·지역이야기 책 발간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또박또박 한글 외는 소리로 가득 찬 경북 칠곡군 가산면의 작은 마을회관. 하얗게 센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긴 열 명의 할머니들이 목청을 높이고 있다. 얇은 공책에 한 글자 한 글자를 꾹꾹 눌러쓴다. 6학년 1반부터 8학년 9반까지의 학생들은 가산면을 오랜 시간 지켜온 할머니들이다.

박태화(74) 할머니는 들뜬 목소리로 자랑했다. "바깥양반한테 글 공부한다고 하기 부끄러워서 몰래 숙제하느라 애 많이 먹었지. 인자사(이제야) 은행 가서 볼 일도 보고, 간판도 읽고 하는 거 보면 고맙고 신기한기라~."

칠곡군 동명면 마을잔치. 15세 손자는 할머니 박후불(71)씨가 정성스레 적은 편지를 낭랑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간다.

"사랑했던 순애아빠. 개밥을 챙겨주고, 피곤에 지쳐 씹는 둥 마는 둥 밥도 팽개치고 책가방 들고 한글 공부 배우러 갑니다. 3년을 열심히 배우고 쓰고 밤이면 달력 뒤편에다 글씨 연습을 합니다. 너무 재미있고 선생이 고마워 죽겠어요. 순애 아빠요, 내 행복을 아시겠지요."

손자는 울먹울먹하더니 이내 눈물 한 방울을 툭 하고 떨어뜨렸다. 할머니가 글을 배우고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쓴 편지였다.

'인문학마을'로 불리는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볼 수 있는 광경들이다. 한적한 농촌지역이었던 칠곡군은 10여 년간의 인문학 조성사업으로 새로운 기적을 일궈냈다. 칠곡군의 변화는 올해 12월 17일 한국국학진흥원이 주최한 '제6회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인문정신문화포럼'에서 지역밀착형 인문학 운동의 우수 사례로 선정되며 주목받았다.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평생교육담당 지선영 계장은 "10여 년 전부터 칠곡주민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2000년부터 칠곡군 자치사업으로 시작한 칠곡군 주민의

올해 7월 칠곡군 학상리에서는 주민들의 주도로 인문학 토론을 하는 '생각밥상' 워크숍이 열렸다.

사진 칠곡군

평생학습은 2013년 현재 '마을로 찾아가는 현장교육'만 50강좌, 청소년과 어른을 위한 인문학과 평생학습까지 모두 150여 개에 이르는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2004년 9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 칠곡군은 2005년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대학인 '칠곡평생학습대학'을 도입했다.

마을 10개소에서 인문학사업… '인문학도시'로 도약 꿈꿔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학점을 통장처럼 모아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을 위해 농업경영전공 수업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아동학, 청년복지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등 네 개의 전공수업을 개설했다. 지금까지 28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올해 칠곡군은 마을 10개소에서 인문학사업을 육성하며 인문학도시로의 확장을 꿈꾸고 있다. '칠곡 미래구상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마을리더 교육을 6개월간 실시했으며 '생각밥상'이라는 주민주도형 인문학 사업토론 등을 한다.

인문학마을 사업은 마을 협의체를 만들고 마을별 신문기자도 육성하고 있다. 2013년 10월 마을 인문학 월간 신문인 <두루두루>가 첫 발간됐다. 10개 마을 주민 기자단으로 이뤄져 마을의 인문학 행사소식을 전하고 있다. 같은 시기 인문학과 함께 엮어 칠곡마을 이야기를 풀어나간 책 <칠곡, 사람을 만나다>와 <칠곡, 인문학 고수를 만나다>도 발간했다.

칠곡군 인문학도시 창조 지역사업 중 하나인 '칠곡 인문학 스토리텔링-구술사 아카데미'의 결과물이다. 각각 일반인과 청소년 기자들이 지역민들을 인터뷰해 만든 것이다. 칠곡 미군부대와 6·25전쟁을 겪은 지역민들의 육성을 담았다.

<칠곡, 사람을 만나다>에 참여했던 주석희(43) 씨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픈 전쟁의 역사를 어르신들의 목소리로 듣고 나니 아이들에게 해 주고 싶은 얘기가 많아졌다"며 남다른 감회를 드러냈다.

인문학교육으로 마을마다 활기가 돌고 있다. 금남리부녀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우는 날에 간식을 챙겨드린다. 또 '비누 만들기'와 같은 생활강좌도 같이 마련해 생필품을 만들기도 한다. 이제 어르신들은 마당에 설치된 스크린 앞에 옹기종기 모여 영화를 보고, 인근 학교에 가서는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는다.

금남리부녀회장 신상자(57) 씨는 "우리 마을에서는 인문학의 힘을 느낄 수 있다"면서 "세대간 가족간의 치유가 이뤄지고 감동을 가진 마을이 되었다"며 감격스러워했다.

칠곡군은 앞으로 인문학도시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선영 계장은 "인문학의 중심은 사람, 마을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이 만든 인문학마을이 도시로 확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G

글·박지현 기자

칠곡군 인문학마을 10개소

마을명	마을사업명
왜관읍 금남리	**맛, 멋, 이야기 있는 마을**(자전거학교 및 공방 운영, 이동밥차 운영, 특산물요리찾기 및 내림솜씨 전수)
왜관읍 매원리	**아름다운 이야기꽃밭**(이야기꽃밭 조성, 서각교실 운영, 꽃길지도 및 계절 꽃음식 만들기)
북삼읍 휴먼시아@	**인문학을 통한 힐링**(마을신문 및 오등(烏燈) 제작, 천연염색, 부모-자녀 감각지도교사 양성 교육)
북삼읍 숭오2리	**달디단 옛이야기와 별과 단감잔치**(이야기산책·이야기음식 프로그램 운영, 이야기 명패 제작, 단감축제 운영)
북삼읍 어로1리	**알콩달콩 이바구길과 북적북적 주막**(이바구길 코스 발굴, 이야기요리 개발, 마을주막 운영)
석적읍 부영@	**다정다감 공동체 꾸리기**(공동보육조합 구성, 공동육아 돌봄교사 양성 및 교재 제작, 체험교육 활동)
지천면 영오리	**석감주와 밥술이 익는 마을**(석감주·가양주 솜씨주민 발굴, 석감주 교실 운영, 마을 벽화 제작)
가산면 학상리	**학상리 인문보물탐사대**(마을 보물지도 제작, 문패·마을책 만들기, 마을이야기 해설사 교육)
가산면 학산1리	**할머니들이 만드는 구석구석 이야기 산책로**(이야기 산책로 발굴, 이야기길 표지판 제작, 주민교사와 그림·글씨교실 운영)
약목면 남계3리	**공평화락(公平和樂) 초롱계 마을**(초롱계의 원형인 상여계 복원 작업, 장승·솟대·초롱 등 제작 체험)

한글을 가교로 "한국문화에 빠졌어요"

세종학당 수강생 올 1만명 가까이 늘어… 한국문화원도 문화교류 거점 역할

뉴욕 한국문화원은 12월 20일 맨해튼의 뉴욕대 스컬볼센터에서 '2013 K팝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페스티벌 참가자들이 경연이 끝난 뒤 합동 공연을 하고 있다.

"제 이름은 키아라입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을 좋아했어요. 한국의 음악·문학·역사에 대한 책도 읽었습니다. 한국문화를 더 알고 싶어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워보니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가사가 들렸습니다. 2년 전에는 K팝 콘서트를 보러 프랑스 파리에 갔습니다. 잊지 못할 멋진 하루였습니다.

세종학당 덕분에 유명한 한국 시인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베네치아에 온 고은 시인을 만나 무척 기뻤습니다. 앞으로 한국어를 더 많이 공부하고 역사, 문학도 연구하고 싶습니다."

카포스카리대학 학생인 키아라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는 세종학당에 다닌다. 한국에 관심이 많아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싶어서다. 올해는 세종학당의 우수 학생으로 뽑혀 한국에 초청받기도 했다. 한국어를 공부하며 흥미가 더 생긴 키아라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할 예정이다.

세종학당은 키아라처럼 한국을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지난 2007년 몽골 울란바토르에 처음 세워진 이래 6년 만에 전 세계 100개소를 넘어섰다. 지난해 10월에는 각국 세종학당을 지원하기 위한 '세종학당재단'도 생겼다.

올해는 특히 한류 확산에 힘입어 세종학당도 크게 확대됐다. 아시아·유럽·중동·미주 등에서 30개소가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세종학당은 지난해 43개국 90개소에서 올해 51개국 117개소로 늘었다. 전체 수강생 수도 지난해 2만8,793명에서 올해 3만6천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어 교육을 위해 세종학당은 표준화된 교과과정을 마련했다. 전 세계 어느 곳의 세종학당에서나 동일한 과정을 통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세종학당재단의 이교택 사무총장은 "초·중·고급 10단계에 이르는 교육과정은 일본에서 배우든, 중국에서 배우든 동일하다"면서 "일관되고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학습 기능 외에 상호 문화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문화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작은 문화원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올해는 한글날을 맞아 각 지역 세종학당의 우수 학생 172명을 초청했다. 학생들은 6박7일 동안 김치 담그기, 전통놀이 등 한국문화를 체험했다. 한국문화를 경험한 학생들은 그들의 지역사회에 한국문화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다.

52개국에 진출해 있는 만큼 나라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 옌타이 등 지역에서는 해당 기업 근로자를 위한 특별반을 운영한다. 이들은 한국문화뿐 아니라 직장·전화 예절, 직장동료 이해하기 등의 수업을 듣는다. K팝의 열기가 높은 멕시코, 칠레 등에서는 K팝 댄스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다.

세종학당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다. 세종학당재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96.3퍼센트가 한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95.4퍼센트가 한국어 과정에 만족한다고 했다. 터키 앙카라 세종학당의 일라이다는 "앙카라에는 한국어 학원이 없어서 세종학당이 없었다면 한국어를 배우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한국어를 배워 대학에 진학하고, 한국에서 원하는 취업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세종학당은 내년부터 내실화에 더 힘쓸 예정이다. 이 사무총장은 "지금까지는 주로 지원금이 인건비에 치중돼 있어 시설 지원이 부족했다"면서 "내년에는 시설 지원을 늘려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한국을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 7월에 문을 연 태국 한국문화원은 K팝·전통공연·사진전 등 한류 확산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K팝 가수 팬 미팅·전통공연 등 문화교류에 힘써

세종학당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한국문화원도 한류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문화원은 1979년 일본 도쿄와 미국 뉴욕에 처음 설치됐다. 올해는 태국, 브라질, 벨기에 3곳에 한국문화원이 추가로 문을 열어 23개국 27개소로 확대됐다. 한국문화를 해외에 알리고 문화교류를 이끌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진 것이다.

태국 한국문화원은 올해 7월 4일 개원해 태국 문화교류의 거점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현대미술 교류전, K팝 가수 팬미팅, 한국어·댄스 강좌, 전통공연 등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 2월에도 한국과 태국의 축구사진 전시회, 한국 관광사진 전시, 태국 대학과 연계한 오케스트라 공연 등이 예정돼 있다.

브라질 상파울루 한국문화원은 10월 23일 개원해 역사·관광자원뿐 아니라 음식·음악·춤 등 한국문화 전반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브라질은 음악·문화·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예술가들을 배출한 문화국가로 교류·협력의 의미는 더욱 크다. 문화원을 통한 양국 교류는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하계올림픽에서 한국의 스포츠문화 홍보 전진기지로 이바지할 전망이다.

글·남형도 기자

老? NO!… 생활체육으로 건강 100세를

종합형 스포츠클럽·국민체력 인증제 확대… 국민건강 기반 닦아

전국 9개 종합형 스포츠클럽 중 하나인 고양골체육관 회원들이 배드민턴과 탁구, 양궁을 배우고 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선수 출신 강사에게서 배우기 때문에 실력이 쑥쑥 늘어난다.

"상체를 좀 더 낮춰보세요. 훨씬 편할 거예요."

"팔도 뻗어야 하는데 생각처럼 쉽진 않네요."

인천 계양구 계산동 주민 김순옥(43) 씨는 요즘 고양골체육관에서 선수 출신 지도자에게 탁구를 배우고 있다. 원래도 강사가 있었지만 강습시간이 짧아 제대로 배우기가 어려웠다. 김 씨는 "궁금한 점이 생기면 곧바로 물어볼 수 있고, 지켜보던 선생님이 먼저 나서서 가르쳐주기도 한다"면서 "전문가인 선생님이 상주하면서 가르쳐주니 실력이 쑥쑥 늘어 재미가 더 붙는다"고 말했다. 고양골체육관에서 배울 수 있는 스포츠는 탁구·배드민턴·테니스·양궁 등 4가지다. 4종목 모두 정규직으로 뽑은 지도자들이 회원을 가르친다.

종합형 스포츠클럽이라는 운영 근거가 생기고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 후부터 생긴 변화다. 예전에도 공공스포츠 등과 같은 제도가 있었지만 중간에 지원이 끊기거나 사업이 변경되는 일이 많아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웠다.

고양골체육관 김춘한 사무국장은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규직 신분의 지도자를 고용하게 된 것은 아주 큰 차이"라며 "지도자들도 책임감을 가지지만 회원도 일정한 회비를 내는 만큼 더 수준 높은 스포츠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고양골체육관과 같은 '종합형 스포츠클럽'은 현재 전국 9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지역 공공체육시설을 기반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게 특징이다. 배드민턴과 탁구, 수영 등 클럽이 마련한 프로그램 중 하나를 고르기만 하면 능력 있는 지도자에게서 쉽게 스포츠를 배울 수 있다. 회원들이 직접 클럽의 운영 주체로 참여하는 자립형 구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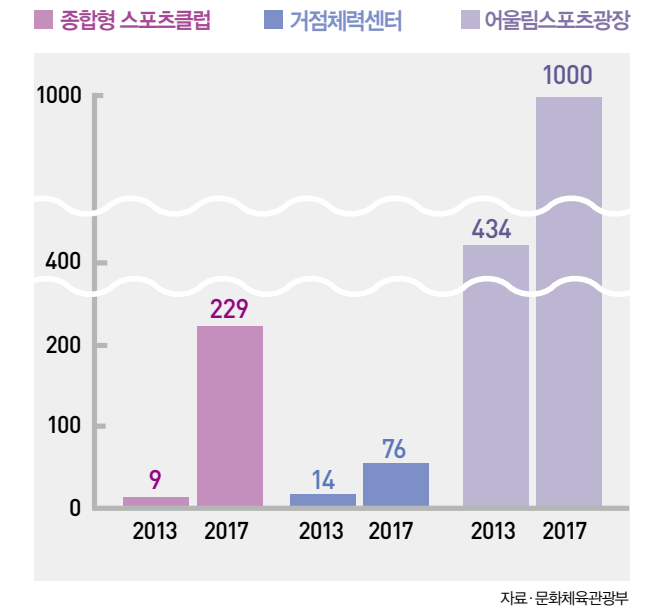
종합형 스포츠클럽은 올해 시범운영(9개소)을 거쳐 2015년 32개소, 2017년 229개소로 점차 확대한다. 2017년에는 클럽별로 월 800~1천여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 2017년까지 약 93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 계획에 따라 시설이나 지도자, 프로그램 등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부 지원사업이 스포츠클럽 단위의 통합 지원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성인 동호회 중심에서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이 참여하는 개방형 구조로 바뀌는 것도 큰 특징이다.

4개 종목 이상이 연합해 총 회원 수 500명 이상을 가진 단체가 종합형 스포츠클럽 허가를 받으면 문체부가 초기 운영비를 지원한다. 기업의 후원이나 회비 등으로 자립할 때까지 종잣돈을 대주는 셈이다.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해 생활체육 공공서비스와 임대 수익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해 간다는 목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생활체육 진흥 종합계획을 지난 11월 발표했다. '스마일 100(스포츠를 마음껏 일상적으로 100세까지)'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는데 어디서나 누구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문체부는 이 계획을 위해 5개월 동안 학계, 언론계, 체육단체 등 50여 명의 전문가와 다섯 차례의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맞춤형 운동 처방 '국민체력 인증제'도 확대

2017년까지 900여 개의 작은 체육관을 만드는 게 가장 눈에 띈다. 폐교·폐파출소·경로당 시설 등을 활용해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학생이 없어 문을 닫은 학교에 대규모 체육시설을 짓고, 지구대에 편입돼 쓸모없어진 파출소 건물에서도 배드민턴·탁구 등을 즐기도록 하자는 것이다. 예산에 의존해 지역별로 큰 체육시설을 짓던 것에서 벗어나 남는 공간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분배한다는 점에서 이점이 크다. 내년 초 일부 지역에서 리모델링에 착수한다.

늘어나는 생활체육시설 (단위: 개)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의 체력 수준을 측정해 맞춤형 운동을 처방하는 '국민체력 인증제'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생애주기별로 스포츠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다. 전국 14개소에 설치한 국민체력인증센터를 통해 이미 4만 4,800여 명의 국민이 체력 점검을 받았다. 과학적 인증기준과 측정시스템을 갖춘 인증센터를 찾으면 자신의 연령에 맞는 필수 건강체력을 측정할 수 있고, 개인의 특성에 맞게 적합한 운동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이러한 인증센터를 2017년까지 64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약 5만명 수준인 인증 참여 인원은 2017년 약 100만여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미설치 지역은 '찾아가는 체력측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스포츠 소외계층을 최대한 줄이는 계획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낙도 등 소외지역을 찾아가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스포츠 버스'와 유소년·노인·장애인 등을 가르칠 체육지도자를 두 배가량 늘려 일반인 중심의 프로그램에 변화를 준다는 내용 등이다. 스포츠 버스는 내년 시범운영에 들어가 향후 시·도당 1대씩 운영할 예정이다. G

글 · 장원석(이코노미스트 기자)

관광의 재발견… 新 성장산업 '우뚝'

관광경찰 출범에 이어 의료관광·소형 호텔 허용… 내년부터 대체공휴일제 시행도

대체공휴일제가 첫번째로 적용되는 내년 추석연휴에는 추석 전날인 7일이 일요일이어서 연휴 이후 첫 번째 평일인 9월 10일을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다.

연합

지난해 최초로 외국인 관광객이 1천만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역대 최다인 1,200만명 돌파가 예상되면서 관광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최초로 외국인 관광객이 1천만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역대 최다인 1,200만명 돌파가 예상된다. 국내외 할 것 없이 관광객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관광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여가의 질도 높아지고 있다.

왕신나(30대·가명) 씨는 2014년 달력을 사자마자 9월 6일부터 10일까지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뒀다. 대체공휴일제가 첫번째로 적용되는 내년 추석연휴가 5일이나 돼 모처럼 고향인 제주도로 편한 귀성길에 오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추석연휴 이후 첫번째 평일인 9월 10일을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명절이 주말과 겹치는 바람에 집에 가는 게 부담이 되었던 왕 씨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대체공휴일제 시행 내년부터 정부나 관공서에서 설날과 추석연휴,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공휴일제가 시행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0월 29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설·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이후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공휴일은 10년간 총 11일(연평균 1.1일) 늘어난다.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되는 첫번째 사례는 내년 추석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12년 국민 여가활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가생활 불만족의 주요 원인으로는 '시간부족'이 48.2퍼센트로 가장 높았다. 거의 매년 공휴일끼리 겹쳐 정작 쉴 수 있는 날이 적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제 시행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생산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여가시간 확대로 관광과 레저산업이 활성화돼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관공서 대체공휴일제 개정으로 민간부문에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체휴일제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숙박 분야에도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월 26일 관광숙박 서비스의 다양성 및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관광호텔업과 소형호텔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관광호텔(메디텔)업 신설은 관광과 의료가 융합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의료관광호텔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환자와 보호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19평방미터 이상의 20실 이상 객실을 갖추고, 장기 체류하는 의료관광객이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별 취사도구를 갖추게 된다.

소형호텔(부티크호텔)은 규모는 작아도 다양하고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맞춤형 숙박시설이다. 단체관광객보다 개별관광객의 수요가 많아지는 추세에 부응했다. 일반 호텔이나 모텔과는 차별화된 숙박시설이다. 최소 객실 수 제한은 20실로 완화해 소규모 숙박업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기존 관광호텔과 가족호텔은 객실 수가 30실 이상이어야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신용언 관광국장은 "의료관광호텔업과 소형호텔업 신설 모두 기존 호텔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광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선된 제도가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경찰 출범 관광경찰이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는 서비스의 초석을 잘 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지난 12월 4일 관광경찰의 50일간 활동과 성과를 발표했다. '친절한 관광경찰, 행복한 한국관광'을 목표로 올해 10월 16일 출범한 관광경찰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명동, 이태원, 동대문, 인사동, 홍대입구, 청계천, 시청 주변에 배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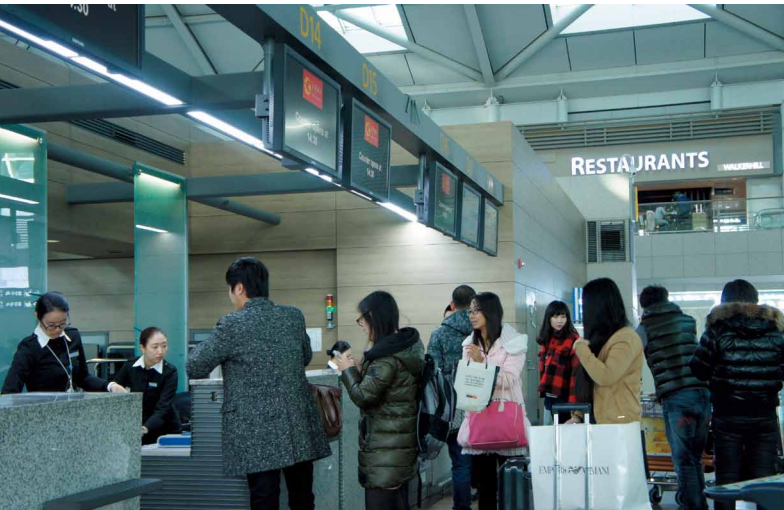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며 총 7천여 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길 안내 등의 정보 제공 6,900여 건과 관광불법행위(무자격 가이드 활동, 상점에서의 가격 미표시, 콜밴 불법영업, 택시 바가지요금 부과, 운전자격증명 미게시 등)에 대한 단속 및 적발 65건 등이었다.

서비스 제공도 53건에 달했다. 지갑이나 휴대폰, 여권 등을 분실한 외국인 관광객을 도와주고 길을 잃거나 늦은 밤 숙소를 잘 찾지 못하는 관광객과 동행해 직접 목적지를 안내했다.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던 중국인 슈잉(가명)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가 관광경찰의 도움으로 찾을 수 있었다. "친절하고 외국말을 아주 잘하는 관광경찰을 만나 다행이었다"며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G

글·박지현 기자

시간선택제-전일제 "이제 선택입니다!"

외국항공사 탑승수속 업무 대행… 회사는 비용절감, 근로자는 시간여유

인천국제공항의 중국 톈진항공 발권 카운터. 톈진항공 등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들의 탑승수속 업무를 위탁받은 에어코리아는 특정시간에 일이 몰리는 업무 특성을 감안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베트남항공(VN)의 탑승수속 업무를 담당하는 오세진(30) 씨는 오전 7시까지 출근해 항공사 유니폼으로 갈아입는다. 오전 8시 10분에 호치민을 향해 출발하는 VN3403기를 시작으로 오전 중 모두 4편을 맡아 처리한다.

탑승 수속이란 항공권 발권에서부터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할 때까지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오 씨는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들의 탑승수속 업무를 위탁받아 인력을 파견하는 '에어코리아' 소속이다.

뒷정리를 마친 오 씨는 오후 1시 30분이면 퇴근한다. 에어코리아가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덕분이다.

"지난해 7월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신청해 집에서 쉬던 중 회사 후배에게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 신청을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기에는 안성맞춤이다 싶어서 저도 지난 10월 복직과 함께 전환을 신청했죠."

오 씨는 퇴근 후 집안 정리부터 한 다음 오후 3시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를 데려온다. 오 씨의 주말 근무가 있을 때에는 남편이 아이를 돌본다. 오 씨는 에어코리아가 창업한 해(2008년) 입사한 6년차 근로자다.

오 씨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 귀띔해 준 사람은 회사의 2년 후배인 최현주(30) 씨다. 동갑내기인 이 둘은 지난해 한 달 간격으로 출산을 하고 출산 휴가에 들어갔다가 둘 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복직했다.

퇴사 고민하다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

남편의 출장이 잦아 육아 분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최 씨는 "가까이에 아기를 맡길 사람도 없어 육아휴직 기간이 끝날 때쯤 퇴사를 고민했다"고 한다.

최 씨가 회사에 그러한 사정을 전하자 회사측은 퇴직 대신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에어코리아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모든 복리후생이 전일제 근로자와 동일하고 근로시간은 전일제의 75퍼센트이지만, 90퍼센트의 임금을 받는다. 또 아이가 자라면 언제든지 전일제로 돌아갈 수 있다.

"시간선택제 덕분에 육아와 일을 함께할 수 있게 됐어요. 다만 개인적으로 일에 대한 욕심을 좀 접어야 해 아쉽지만, 아이가 자라면 그때 생각해 보려고요."

최 씨는 러시아 항공사인 아에로플로트 등 2개 외국 항공사의 탑승수속 업무를 맡고 있다.

에어코리아는 현재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는 50여 외국 항공사 가운데 26개사의 탑승수속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전체 직원 약 950명 가운데 800명가량이 탑승수속 인력이다. 나머지는 환경미화 등 인천국제공항 위탁관리 인력, 그리고 회사 관리자들이다.

에어코리아의 시간선택제는 비행기 이·착륙 시간대에 업무가 몰리는 탑승수속 업무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2011년 이후 160명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했으며, 기존 직원 가운데 6명이 육아 등의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했다.

에어코리아 관리팀의 김정문 과장은 "특정 시간대에 업무가 집중되는 일의 특성에 따라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근로자 입장에서는 시간 여유를 갖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시간선택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 국적에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업무이므로 외국어 능력과 노하우 습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창업 당시 선발해 몇 년간 노하우가 쌓인 직원들이 결혼과 임신, 출산을 거치면서 퇴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시간선택제 도입이 필요했다고 한다.

시간선택제 사원에서 전일제로 전환 가능

에어코리아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알바'나 고용이 불안정한 계약직으로 보는 시선을 우려해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입사한 뒤 6개월 이상 근속하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일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았다.

덕분에 지금까지 고용한 시간선택제 근로자 가운데 약 100명이 전일제로 전환해 근무하고 있다. 현재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55명.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를 택한 것이다.

에어코리아는 지난 11월 노사발전재단에서 탑승수속 업무 시간선택제 근로자 100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정받았다. 이 가운데 20명이 채용됐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인원을 채용한다.

탑승수속 업무가 여성선호 업종이기는 해도 입사 지원에서는 성별을 따지지 않는다. 연령·학력 제한도 없다. 다만 외국어 가능자는 우대한다. 물론 입사 후 일정기간 업무에 필요한 언어교육을 받는다.

김 과장은 "탑승수속 업무가 겉으로는 멋져 보이지만 뜻하지 않은 상황에 대처해야 하기도 하고, 불만 가진 승객도 웃으며 응대할 수 있는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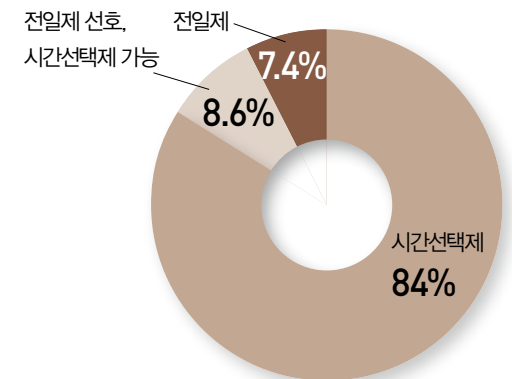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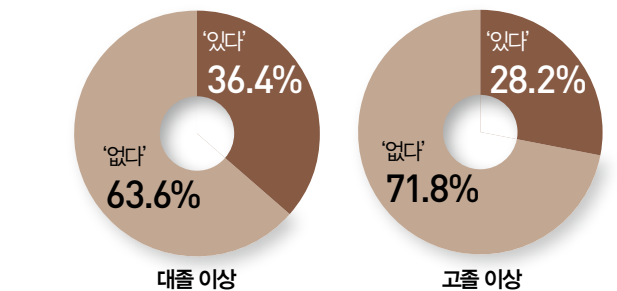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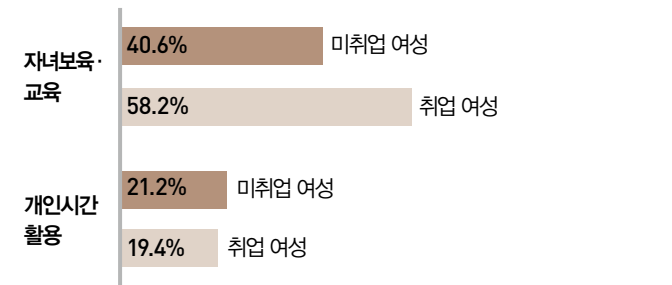
에어코리아는 현재 시간선택제 일자리 입사지원서를 이메일로 수시 접수하고 있다. G

글과 사진·박경아 기자

에어코리아 시간선택제 일자리 입사지원서 접수

전자우편 insa@airkorea.biz **문의** ☎ 032-743-2794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수요 조사

취업 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의 취업 희망 근로형태

취업 여성 중 시간선택제로 전환 또는 전직 의사가 있는 비율

시간선택제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

*조사 대상 : 취업 여성 500명, 미취업 여성 1천명
*수행 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에 열정 가진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르바이트와 달리 사명감 필요… 근무시간만 짧을 뿐 복리후생은 전일제와 같아

지난 11월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에서는 1만개의 일자리가 선보여 육아를 위해 회사를 그만둔 주부, 마땅한 재취업 일자리가 없던 40~50대 조기 은퇴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현재 각 기업별로 채용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기회를 놓쳐 아쉽다면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관심을 가져보자. 노사발전재단은 기업 규모와 업종 제한 없이(단, 1인 사업장 제외) 신규 고용창출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와이지원

국내 최대이자 세계 5대 엔드밀(END MILL) 제조업체다. 1981년 설립된 와이지원은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자동차, 기계산업 등 다품종 절삭공구를 생산해 수출하고 있다. 절삭공구 품종이 많다 보니 포장 인력이 부족해 지난해부터 본사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 주로 경력단절 여성들을 채용해 기존 직원들의 장시간 근무 부담을 덜고 있다.

지금도 수시로 기능직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모집 중이다. 근무지는 본사 공장이다. 고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신입·경력 모두 가능하다. 연령 제한은 없으며 다문화가정 여성도 채용하고 있다.

문의 와이지원 인사총무과 ☎ 032-500-5670
와이지원 www.yg1.co.kr

한국고용정보

서울, 부산, 대전, 춘천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금융마케팅 및 인력관리 전문기업이다. 현재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자를 모집 중인 곳은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에 위치한 한국고용정보 춘천 컨택센터. 이곳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오전반·오후반 2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회사 안에 어린이집이 있어 시간선택제 근로자들도 이용할 수 있다. 정해진 임금 이외에 고객에게 부가서비스를 권유해 성사되면 받는 성과수당도 받을 수 있다.

고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연령은 50세 미만이다. 단, 사회 경력이 있는 경우 50세 이상도 가능하다. 채용 시까지 수시로 모집한다.

한국고용정보 춘천컨택센터의 상담원들. 춘천컨택센터에서는 오전반·오후반으로 운영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다.

문의 한국고용정보 춘천컨택센터 ☎ 033-815-8011
한국고용정보 www.kbsjob.co.kr

와이디피

의약품 물류전문기업으로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 11월 마감된 노사발전재단의 올해 마지막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신청을 해 10명을 새로 고용할 여력을 갖게 됐다.

와이디피의 이건일 부사장은 “24시간 온라인으로 약품 주문을 받아 신속하게 배송해야 하기 때문에 야근이 잦아 장시간 근무가 많아져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성별·연령·학력·경력은 무관하며 성실하고 정확하게 근무할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 2014년 상반기 채용할 계획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문의 와이디피 ☎ 02-2632-0100 내선번호 105번
와이디피 www.ydpharm.co.kr

신세계SVN

전국의 이마트 안에 100여 개에 이르는 점포망을 가진 베이커리 생산기업. 현재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과제빵 생산기사를 모집 중이다. 신세계SVN이 노사발전재단의 지원을 받는 인원은 43명이다. 근무지역은 전국의 이마트 안 베이커리 점포. 고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경력 3년 이상 제과제빵 자격소지자다. 1차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서를 접수한 뒤 해당자에게 통보해 2차 면접을 실시할 계획이다. 입사지원서는 2014년 1월 31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접수한다. 채용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잡코리아와 잡신세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신세계SVN 인사팀 ☎ 02-728-6014
입사지원서 접수 201105523@shinsegae.com
잡코리아 www.jobkorea.co.kr, 잡신세계 job.shinsegae.com

아즈텍WB

부산 사하구에 본사, 서울에 지사가 있는 의류종합 생산업체, 코스닥 등록기업이다. 원단 생산뿐 아니라 신사·숙녀복, 교복 등을 생산해 국내 판매는 물론 해외 수출도 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인원이 10명이다. 현재 부산의 원단 생산공장에서 근무할 생산직 근로자와 회계 담당 사무직 근로자를 모집 중이다. 성별·나이·학력 모두 무관하다. 입사지원서는 이메일로 접수하고 있다. G

글과 사진·박경아 기자

문의 ☎ 070-7540-7006
입사지원서 접수 ykhmkim@naver.com
아즈텍WB www.aztechwb.co.kr

우리는 이런 인재가 필요해요!

“책임감이 중요해요. 업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금방 그만두기보다 좀 참기도 하며 오래 일할 수 있는 분이면 좋겠어요.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아 직장생활을 해 본 경력단절 여성들이 좀 더 오래 근무하더군요. 고객과 전화 대화를 많이 해야 하므로 많은 대화가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분에게 적합합니다. 그리고 일에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오래 일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고용정보 춘천컨택센터 우영석 과장

“마트가 오전 10시에 문을 열어 밤 12시까지 운영되다 보니 전일제 제과제빵 생산기사의 업무 부담이 너무 커서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게 됐어요. 근무시간은 전일제보다 짧아 하루 4시간입니다만, 성실해야 합니다. 제과·제빵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하고요.”

-신세계SVN 인사팀 김광연 주임

“시간선택제는 근무시간은 짧지만 아르바이트와는 달라요. 다른 복지후생은 전일제와 동일한 정규직 일자리인 만큼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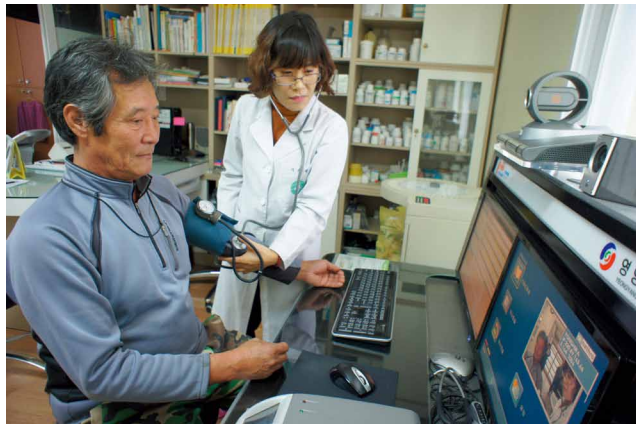
-와이지원 인사총무총괄 이재광 본부장

“얼마 전 해운대 벡스코에서 일자리 박람회에 참가했는데 구직자들이 코스닥 등록기업이란 외형만 보고 왔다가 공장을 보더니 돌아가 버리더군요. 원단 직조와 염색을 다루는 섬유공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해요. 팀별 작업이 중요한데 다른 팀원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분이 오면 좋겠어요.”

-아즈텍WB 총무팀 김영규 실장

정부 지원받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 기업 문의
노사발전재단 ☎ 02-6021-1000
2014년부터 각 지방노동청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기업 정보 제공

“동네서 원격의료 받으니 참 좋아”

노인인구 30퍼센트 넘는 초고령지역… 보건소장 “초진은 대면진료가 원칙”

교통 불편과 함께 인구 감소,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경북 영양군에서는 2009년부터 원격의료가 이뤄져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2월 17일 오후 강원도 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하더니,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서 20킬로미터쯤 떨어진 용화보건진료소로 가는 길에 진눈깨비가 내렸다.

“여기는 ‘강원남도’라니까요, 허허.”

아담한 단층 건물의 용화보건진료소 안에서 만난 지역주민 김길수(63·가명·농업) 씨. 그는 이곳 진료소 이윤영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가며 원격의료로 발 피부를 살펴보고 있었다.

“고혈압 때문에 원격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2011년쯤인가 병원에서 고혈압이라했는데, 농삿일을 하면서 날짜 맞춰 병원 가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지금은 피부병도 치료하고 있어요.”

그는 이 간호사와 상담하던 중 피부에 이상을 발견하고 영남대의료원에 가서 의사와 대면진료를 한 다음 원격의료로 관리하고 있다.

“영양군에 병원이 하나 있긴 한데 진료과목이 몇 개 안 돼요. 다른 병원에 가려면 안동이나 대구로 가야 하는데, 잠깐 진료받으러 가는 시간이 안동만 해도 두어 시간, 대구를 다녀오자면 종일 걸려요.”

이곳에서 만난 또 다른 주민 이진석(72·가명) 씨는 초기 치매를 관리받고 있다. 이 간호사는 “1년 전쯤 기억력이 나빠지고 머리가 자주 아프시다 해서 경북도립노인전문병원에 진료 의뢰를 했는데 초기 치매로 진단받았다”며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도립노인병원과 원격의료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화보건진료소에는 원격의료를 위해 영상으로 담당의사를 만나는 화상시스템과 함께 당화혈색소검사기, LDX(콜레스테롤·간기능 검사), 혈압측정기, 폐기능검사기, 심전도검사기, 전자청진기, 피부경 등이 갖춰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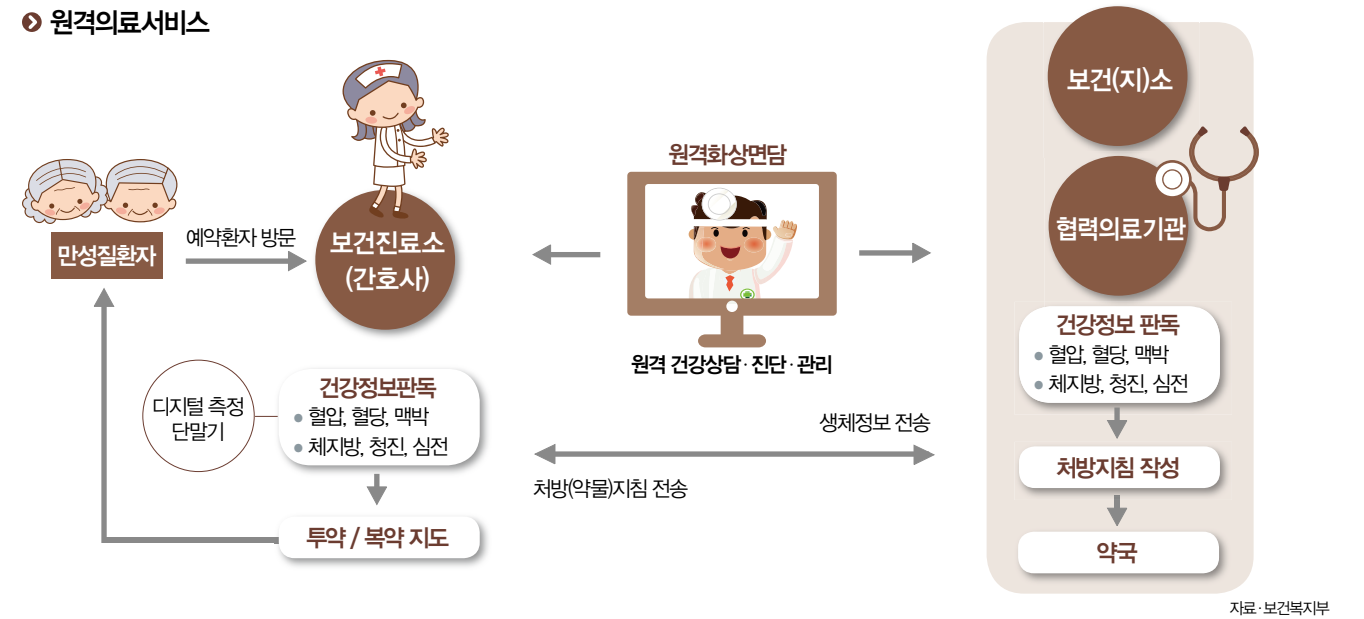
원격진료 후에는 처방전을 받아 처방약이 이곳 보건진료소 비치약품 가운데 있으면 그 자리에서 약을 받고, 없는 경우 원격진료망에 연결된 약국용 시스템을 통해 처방전을 전달, 택배로 약을 받는다.

영양군의 면적은 서울의 1.3배에 달하지만 인구는 1만8천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만 65세가 넘는 노인인구 비율은 31.3퍼센트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고령화율 21퍼센트 이상)가 되는 때를 2026년으로 예상하고 있으니 영양군은 우리 미래사회의 예고편이랄 수 있겠다.

영양군의 민간 의료기관은 의원까지 통틀어 5곳, 그것도 모두 영양읍 내에 있다. 수지면 같은 경우 대중교통이 하루에 불과 서너 번 다니니 읍내 오기가 불편하고, 고령 환자들이 손수 차 몰고 다니는 일도 쉽지 않다.

영양군보건소의 보건행정담당 권영삼 계장은 “자식들이나 와야 병원으로 모시고 가지, 몸이 아파도 혼자 힘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이 적지 않다”며 “그분들은 자신의 병세에 대한 설명도 서투르기 때문에 중증이나 급성질환이 아닌 경우 집에서 가깝고 동네사정 잘 아는 의료인(보건진료소 간호사)이 있는 보건진료소에서의 원격의료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영양군에서 원격의료가 시작된 것은 2008년 강원도 강릉시(농촌), 충남 보령시(어촌)와 함께 ‘산촌’ 의료취약지역으로 꼽혀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서부터다.

2009년 보건기관 14개소(보건진료소 8개소, 보건소·지소 6개소)와 2,3차 의료기관 3개소를 연결하는 원격영상시스템을 구축해 원격의료를 시작했다. 2011년 도립노인병원과 치매시스템, 2012년 대구가톨릭대병원과 류머티스전문질환센터 시스템을 설치해 서비스를 확대했다.

원격의료서비스

자료·보건복지부

“1년 시범사업 후 주민들 반응 좋아 무기한 시행”

김춘화 영양군보건소장은 “원격의료가 원래 1년 한시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지만 주민 반응이 좋아 이듬해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연장했고, 2011년부터는 무기한 시행으로 바꿔 운영해 오고 있다”며 “초진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격의료 건수는 2009년 1,770건에서 2012년 4,853건으로 약 2.7배 늘었다. 영양군청과 보건소가 지난 5월 원격의료 이용 주민 1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환자의 81.3퍼센트가 만족(매우 만족 15.9퍼센트, 만족 65.4퍼센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군과 함께 시범사업을 시작했던 강릉시, 보령시의 원격의료도 인근으로 확산됐다. 강릉을 시작으로 강원도 전역에서는 현재 보건진료소(42개소)와 보건소·지소(26개소) 간에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 질환(고혈압·당뇨) 원격의료가 이뤄지고 있다. 보건소(12개소)와 협력의료기관(4개소) 사이에서 치매 조기검진 후 치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치매관리 서비스도 이뤄지고 있다.

충남에서는 2009년부터 서산시도 추가됐다. 현재 보령시에서는 원산도·외연도·삽시도 등 도서에 위치한 보건진료소(17개소) 및 보건소·지소(5개소), 서산시에서는 보건진료소(15개소), 보건소·지소(11개소) 및 공공시설(4개소)과 보건소·협력의료기관, 그리고 약국과 원격의료망을 구축해 외딴 섬과 오지 주민, 시설에 거주하는 환자를 위한 원격의료가 이뤄지고 있다. G

글과 사진·박경아 기자

영양군보건소 health.yyg.go.kr **문의** ☎ 054-680-5114
강원도청 www.provin.gangwon.kr **문의** ☎ 033-254-2011
충남도청 www.chungnam.net **문의** ☎ 041-635-2000

원격의료 주기적 대면진료 필수

병원급 원격의료 대상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제한해 축소

원격의료, 이것이 궁금해요!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는 치료의 안전성이 없어 결국 병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대면진료가 기본이며 원격의료는 대면진료를 보완·보충하는 것입니다. 의사와 환자의 선택과 합의하에 원격의료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질환, 원격의료가 가능한 경증질환 위주로 대상 질환을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의 원격의료기기 수준은 혈압·혈당 등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으로 오작동 우려가 높지 않습니다. 향후 기술 발달을 감안해 원격의료기기 허가 과정을 강화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개인 건강정보의 삭제·분실·유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원격의료 허용과 동시에 정보보호 규정 강화, 관리·감독체계 신설 등을 추진하고 원격의료 시설·장비 기준에도 정보보안에 필요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 기준을 규정할 계획입니다.

만성 질환자의 경우 혈당 수치와 혈압 등 데이터 전송만으로 처방하면 합병증 등 다른 질환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병원이 없는 도서·산간지역에는 공공의료 지원 확대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만성 질환자는 재진이 원칙이므로 대면진료를 통해 환자 상태를 파악한 후 원격의료를 통해 상담과 건강관리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의원은 주기적으로 환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게 됩니다. 병·의원이 없는 도서·산간지역 주민들도 만성 질환자와 마찬가지로 대면진료와 원격의료를 병행해 체계적인 맞춤형 처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은 원격의료와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격의료는 장비와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드는데, 대형병원과 대기업 등이 손잡고 하는 유헬스사업 투자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되지는 않을까요?
기존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 가능토록 하고 추가적인 장비 비용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고가의 정밀진단 또는 검사장비는 이미 허용되고 있는 의사·의료인 간의 원격의료에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환자가 추가로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임대나 비용 지원 등을 통해 큰 부담 없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는 원격의료를 통해 집 근처 보건기관에서 진료와 처방, 처방약을 받을 수 있다.

10월29일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보건복지부가 그간 개정안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의료계 등이 제안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수정했다.

노인·장애인 등이 의료서비스를 보다 쉽게 접하게 하고 상시 관리로 만성 질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를 높여나가기 위해 마련된 의료법 개정안은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교육 및 진단·처방을 하고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난 12월 10일 발표된 수정안은 이러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하여 원격의료가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 원격의료만 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위반 시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원격의료 중에도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감안해 원격 진단·처방이 가능한 질환을 의원급에서 주로 초진을 하는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경증질환으로 한정했다. 노인·장애인의 경우 사전에 대면진료를 통해 건강상태를 잘 아는 상황에서만 원격 진단·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형병원 쏠림 우려를 없애기 위한 개선 방안도 추가됐다. 병원급 원격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의 범위를 '질병상태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에서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상태 점검 및 욕창 관철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제한하여 축소했다.

개정안 시행 시기도 '공포 뒤 1년6개월 후'로 늦춰

또한 의사·환자 간에 충분한 시범사업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부칙에 넣었다. 개정안 시행 시기도 시범사업 기간(6개월)을 감안해 기존(1년)에서 '공포 뒤 1년6개월 후'로 늘렸다.

이번 개정안 수정으로 '동네의원 중심의 국민편의 제공 및 의료 접근성 높이기'라는 입법 취지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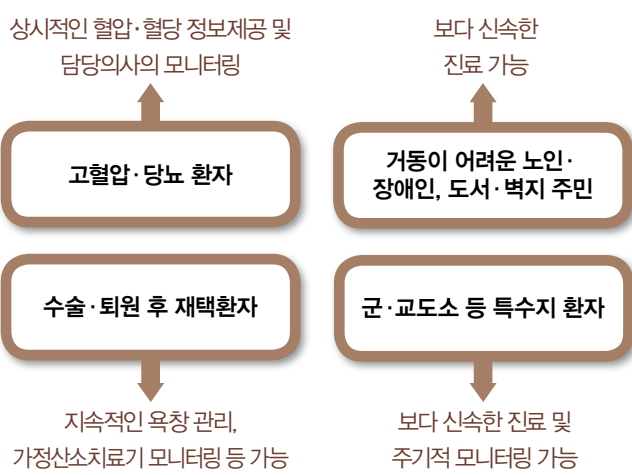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계, 학계, 관련단체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하여 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추가 보완 및 개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원탁회의에서는 주로 개선 보완사항, 건강보험 수가, 경증질환 범위 등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수가, 책임소재 등 원격의료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원격처방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는 대면 진료에 준하여 설정하며, 건강에 대한 전문 상담·교육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가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 그리고 저소득층의 원격의료 장비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G

글과 사진·박경아 기자

원격의료 효과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 수정 내용

구분	입법예고안	수정안
원격의료 전문의료기관 제한	규정 없음	신설 : 원격의료만 행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 금지, 위반 시 형사벌칙
대면진료 원칙	규정 없음	신설 : 같은 환자에 대한 원격 진단·처방 시 주기적인 대면진료 필요
초진제한	규정 없음	신설 : 원격 진단·처방은 경증 질환에 한정 신설 : 노인·장애인은 대면진료로 건강상태를 잘 아는 의사
병원급 원격의료대상자 축소	수술·퇴원 후 질병 상태 경과 관찰이 필요한 재택환자	축소 : 수술·퇴원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 상태 점검 및 욕창관찰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시범사업 및 시행시기	시범사업 근거 없음 공포 뒤 1년 후 시행	신설 : 시범사업 근거 규정 연장 : 공포 뒤 1년 6개월 후 시행

자료·보건복지부

공공데이터 개방 '컨트롤 타워' 생겼다

첫 회의서 2017년까지 9천여건 추가 공개… 개방률 60퍼센트로 상향

경기 김포시에 사는 장현욱(42·가명) 씨는 창업을 준비 중이다. 주변 지인들이 여러 조언을 해 줬지만 정확한 정보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다. 상권 분석을 위해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을 찾고 인터넷 검색에 나섰지만 쉽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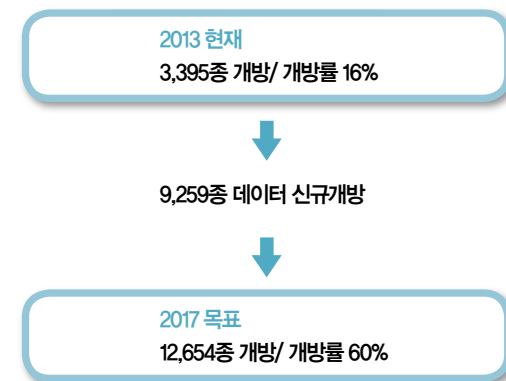
장 씨는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기도 쉽지 않지만, 막상 여러 자료를 찾았더라도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창업에 도움이 되는 공공데이터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앞으로는 장 씨와 같은 예비 창업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가 공공데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0월 31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데 이어 12월 10일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해당 법률에는 향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들은 이를 활용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의 비즈니스 창출에 나설 수 있고 이는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위원회는 정부3.0 핵심과제 중 하나인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 주요 시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협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진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이밖에 관련 부처 장관 8명, 공공기관장 3명 등 공공분야 16명과 시민단체·언론 관계자 3명, 업계·협회 관계자 7명 등 위촉직 16명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15대 전략분야 우선 개방… 8만6천여 신규 일자리 창출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중앙·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제출한 3,395종의 데이터 개방목록에다 9,259종의 데이터를 추가, 2017년까지 총 1만2,654종의 데이터를 개방하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현재 16퍼센트인 개방률이 60퍼센트로 대폭 상향된다. 특히 기상·특허·교통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15대 전략분야를 우선 개방해 8만6천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5개년로드맵

자료·안전행정부

이를 위해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법·제도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지금껏 국민들의 데이터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데이터 활용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창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춘 창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전 기간에 걸쳐 지원(창조경제타운, 비타민 프로젝트)한다. 중소기업청은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창업 준비정책을 마련(스마트 앱 창작터, 스마트 벤처창업학교)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안정화와 해외 진출(글로벌 K-스타트업)을 돕는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위원회 출범으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정책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계획과 체계가 정립됐으며 이제 각 기관의 충실한 계획 이행과 성과 창출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장 김진형 KAIST 교수

"수요자인 국민 편에서 싹 바꿔야죠"

오상민 기자

김진형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민이 더 많이 참여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항상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진형(64) KAIST 전산학과·소프트웨어대학원 교수는 1995~1999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원장을 역임한 공공데이터 분야 베테랑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과학기술 분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데 일조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3.0 핵심과제의 하나인 공공데이터 활성화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17일 서울 도곡동 KAIST 연구소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공공데이터, 어떻게 달라집니까?

"공공데이터는 늘 존재했지만 활용이 미미했습니다. 국민이 쓰지 않는 공공데이터는 그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회가 주축이 돼 개방부터 활용까지 모든 절차에서 수요자인 국민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입니다. 공공데이터포털 기능을 강화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데이터를 누구나 편리하게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내년부터 기관별 공공데이터 목록 전체를 포털에 공개해 국민이 필요한 자료를 신청하면 제3자 권리침해 같은 비공개 사유만 없다면 전부 개방할 겁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컨대 동네에서 새로 음식점을 차리려는 예비 창업자라면 상권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공공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겠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기기 발달로 온갖 정보가 범람하지만 확실한 정보만 취사선택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라면 가장 필요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최근 들어 산업계에서 주목하는 기상정보 또한 공공데이터로 많은 부분이 제공돼 관심 있는 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3.0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2009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정부2.0을 선언하며 화제가 됐고 우리나라도 정부 중심의 정부1.0에서 국민 중심의 정부2.0으로 공공정보 개방을 강화했죠. 정부3.0은 국민 '개개인'을 중심으로 운영 방향을 옮기는 한편 온 국민이 무선 인터넷·스마트기기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간혹 언론에서는 정부2.0과 3.0의 차이점을 묻지만 학계에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런 면에서 정부3.0의 취지를 이해하고 기여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국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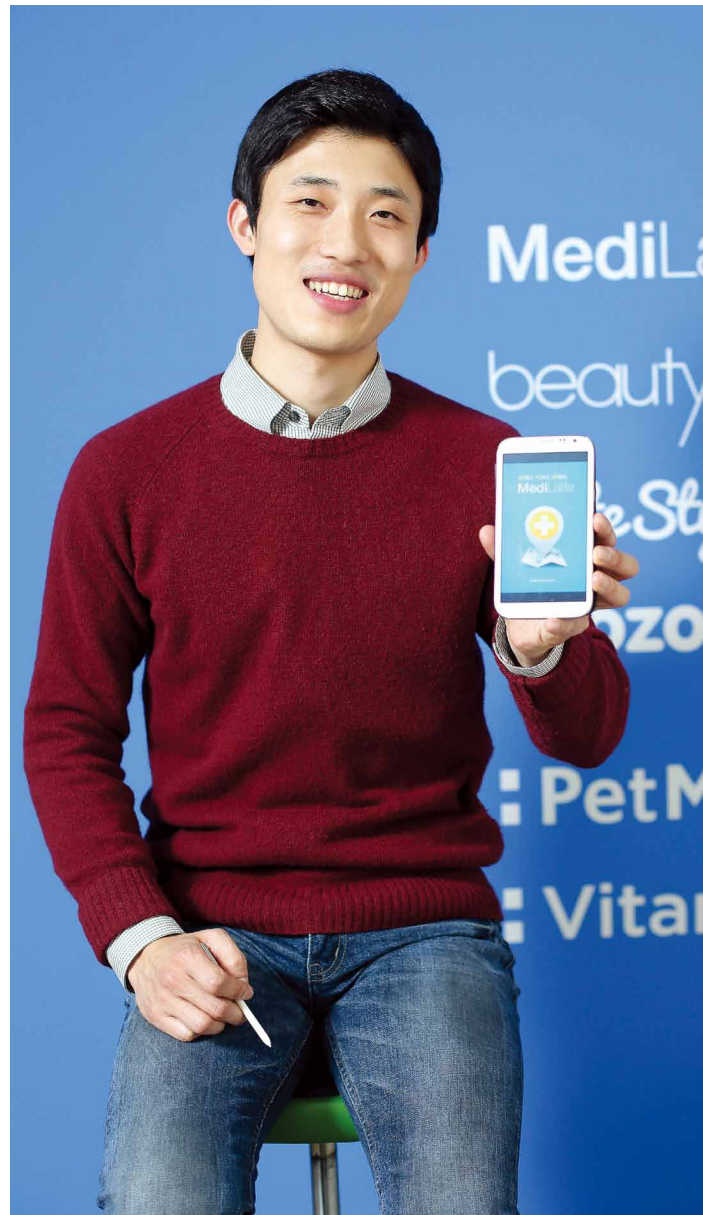
"정부3.0은 국민 개개인 맞춤형으로 다가서는 걸 목표로 합니다.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가 필요로 하는 정보·복지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온 국민이 세대별로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개진할수록 공공데이터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통이 중요한 것이죠. 위원회는 국민이 더 많이 참여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정부 측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많은 회의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글·이창균 기자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

가깝고 싼 병원? '메디라떼'에서 찾으세요!

1년 만에 10억원대 매출… "공공데이터로 많은 사업과 일자리 만들기를"

원동현 객원기자

이희용 대표는 정부가 개방하는 공공데이터를 더 많은 벤처인들이 관심을 두고 활용하기를 권장했다.

병원도 많고 환자도 많다. 하지만 어느 병원 시술료가 조금이라도 더 쌀까? 특히 미용성형처럼 의료보험 비급여 시술료는 병원마다 제각각이다. 일일이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집에서 제일 가까운 병원들 중에서 쌍꺼풀 수술 가격을 비교해 보고 싶다'는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조차 한눈에 찾아볼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이 있다. 지난해 10월 23일 서비스를 개시한 '메디라떼(MediLatte)'다. 이 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데이터베이스 등 병원정보 관련 공공데이터를 활용한다. 같은 자료를 잘 정리해 원하는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앱이다.

가장 가까운 내과를 찾으려면 내과 아이콘을 선택하고 원하는 지역을 선택만 하면 된다. 할인이나 캐시백 서비스 등 혜택이 많은 순서나 다른 사람들이 좋은 병원이라고 많이 추천한 순서,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순서 등으로 병원을 정렬해 볼 수도 있다. 자신의 위치버튼을 누르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병원들을 지도 위에 표시해 준다.

이 앱은 신생 벤처기업 에이디벤처스가 만들었다. '메디라떼'로 올해만 연 1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34세 동갑내기인 두 벤처인(이희용·황진욱)이 아이디어만으로 설립한 회사다.

그들은 환자가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병원이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해 주자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수많은 병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정보를 모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일부 지역의 병원 자료만 들어 있다면 앱을 만들어도 이용자들이 외면할 것이 뻔했다. 앱에서 검색되지 않지만 이용자들에게 더 맞는 병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5만8천여 개 병원에 대한 자료는 정부만 가지고 있었다. 두 창업자는 심평원에 가서 관련 데이터를 써도 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공공정보를 써도 되는지 확신을 못 가진 것이다. 그러나 심평원의 대답은 흔쾌했다. "안 될 이유가 있나요?"

단순히 병원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10억원대 매출을 낼 수 있었던 건 아니다.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모은 사용자들에게 또 다른 혜택과 정보를 주고 병원들로부터 수익을 얻어야 했다. 공공정보를 돈으로 만드는 방법을 고안했다. 이것이 '메디라떼'의 첫번째 성장 비결이다.

'메디라떼'의 비즈니스모델은 단순하다. 에이디벤처스가 병원의 마케팅을 돕고 그 비용을 받는 것이다. 병원의 마케팅 비용 일부를 시술료 할인이벤트나 캐시적립 형태로 환자에게 돌려준다. 환자들은 '메디라떼'를 통해 병원을 찾고 병원비를 할인받는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로 '의료관광' 정보도 융합

그러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모든 앱이 '메디라떼'처럼 돈벌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에이디벤처스에 심평원 데이터는 앱을 구성하는 기초일 뿐이다. 보다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앱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또 기본 데이터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정보를 늘 찾아다닌다. 예컨대 '의료관광'이라는 키워드에 착안해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정보를 받아 병원 데이터와 융합하는 식이다. 또 병원이 환자들과 협상해서 최대한 깎아줄 수 있는 민감한 가격정보도 지속적으로 추가한다.

또 하나의 성장비법은 발로 뛰는 영업이다. 앱을 만들어놓고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어서는 실제 수익을 올릴 수 없다. 꾸준히 병원을 찾아 고객을 확보하고 병원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영업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 새로 서비스할 방향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 성장전략이다.

이희용 대표는 "지금 메디라떼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정보에 불과하다"며 "우리의 활용사례를 보고 더 많은 벤처인들이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심을 두고 많은 사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G 글·박상주 기자

단순한 공공데이터에서 '메디라떼'가 만들어지기까지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웹사이트에서 전국 병원정보 발견

2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법 고안

3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추출

4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확보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5 웹사이트 서비스를 모바일 버전(앱)으로 개발

6 추출된 정보를 재조합해 웹사이트로 서비스

7 서비스 가능한 앱 완성

중앙포토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및 안전관리 현황 관련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생활 관련 공공데이터 국민 품으로

연내 국민안전 등 3대 분야 110종… 2017년까지 180종 전면 개방

창업을 계획 중인 김공공(가명) 씨는 최근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김 씨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의 인구분포 특성, 변동 추이, 업종별 현황 및 개·폐업 정보, 지자체의 교통에 따른 유동인구 현황 등 정보를 파악해 주변 상권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은 위치와 업종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얻게 됐다. 김 씨는 "공공데이터 개방이 나와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뜻밖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어떤 공공데이터가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 더욱 다양하게 활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주부 박꼼꼼(가명) 씨는 아이가 놀이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불안감이 컸다. 어떤 놀이시설에서 어떤 사고가 빈번한지 잘 몰라서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던 것. 박 씨는 최근 개방되는 공공데이터 중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관련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 알려준다면 미리 대비할 수 있어서 좀 더 안심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가 소관 데이터 180종을 2017년까지 전면 개방한다. 개방되는 공공데이터는 안행부 전체 공공데이터의 72퍼센트 수준이다. 그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이터 110종은 올해 말까지 개방한다.

안행부가 개방하는 공공데이터는 국민안전과 지방자치, 그리고 국가행정 등 3대 분야로 구분된다. 올해 말까지 제공되는 데이터 11종중 국민안전 분야에서는 1일 재난위기 상황,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승강기 사고 등 안전정보가 개방된다. 지방자치 분야는 주민등록인구 상세 현황, 국가주소, 지방자치단체별 부채 및 재정·세정 현황 등이다. 국가행정 분야에서는 공공취업정보, 중앙부처 주요 직위, 대통령기록물 목록, 정부포상기록 등이 개방될 예정이다.

개방되는 정보의 수준도 이전보다 높아져 중요한 정보들이 다수 포함된다. 안행부는 이처럼 종합적인 정보 제공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주민통계의 경우 기존에는 읍·면·동별 인구 수 등 일부만 개방됐다. 하지만 이번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읍·면·동별로 출생·사망·세대현황·인구변동 추이 등의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로써 지역별 인구분포를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교육·복지·보육·실버산업 등 산업 분야의 정책 결정과 소상공인 창업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적인 정보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국민안전 분야에서의 공공정보 개방은 전 국민이 국민생활 전반의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활용폭이 크다. 일일 재난상황, 홍수·화재 등 재난안전, 추락·물놀이 사고 등 안전사고와 범죄·교통사고 현황 등 주요 안전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비교도 할 수 있게 돼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가능하게 됐고, 연관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종 인·허가, 복지, 위생, 보건, 환경, 시설 등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비, 지방공기업 부채 등 지방재정 운영 현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비교하는 종합정보를 활용하면 지방자치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도 높아질 수 있다. 그밖에 공무원 인사정보, 주요 국가기록정보 등도 개방된다.

데이터 개방은 안행부 홈페이지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G

글·남형도 기자

안전행정부 www.mospa.go.kr **공공데이터포털** www.data.go.kr

안전행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개념도

공공데이터 활용 예시

분야	활용 예시
생활안전	• **안전산업** 사망·사고 통계 등 사건·사고를 지도정보(브이월드, 국토부 제공) 기반으로 분석, 사고가 많은 지역별로 안전시설(신호등, 안내판, CCTV 등)을 효과적으로 설치하여 관련 산업 신장 • **개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승강기 안전, 안전귀가 정보 등의 활용으로 국민 생활안전 체감도 향상
자치행정	• **창업희망자** 업종별 음식점 현황과 개·폐업 정보 등 제공데이터와 성별·연령별 인구분포 현황 등을 결합하여 주변 상권을 분석함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은 위치와 업종 선정 • **요식업협회** 과거 30년간 요식업 환경을 분석하여 미래 국민 식생활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요식업계 방향성 제시 • **유통업계** 새주소정보, 전자지도, 국가기초구역 정보를 활용하여 내비게이션, 지도 제작, 인터넷 지도서비스에 적용
지역경제	• **유통·관광업** 지역별·성별·연령별·세대별 현황을 활용하여 지역 특산품 홍보 및 맞춤형 관광상품 서비스 실시 • **개인** '별난 먹거리 여행' 등 모바일 앱 개발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국가행정	• 학계, 연구소, 학생 및 교수 등 다양한 정책연구자가 공공자료를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학술 인프라 제공

자료·안전행정부

'한돈부문' 품질평가 대상 탄 '개미와 베짱이' 농장 이건식 대표

"그간 고생 보상받은 듯 일할 맛 나네요"

이건식 대표는 양돈 선진국에서 배운 사육관리 시스템을 자신의 농장에 적용해 뛰어난 생산 성과를 냈다.

"뭔가를 바라고 일한 건 아닌데, 이렇게 상을 받고 나니 그간의 고생스러움을 보상받은 기분이 들고 기쁩니다. 살을 에는 듯이 추워도 요즘 정말 일할 맛이 납니다."

12월 13일 '제11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에서 한돈부문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개미와 베짱이' 농장 이건식(57) 대표는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주관하는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축종별 고품질 생산 우수 농가를 선정·시상한다. 축산농가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 축산물 생산모델을 발굴, 공유해 국내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한 행사다. 이 대표는 한돈부문에서 전국 평균(68.3퍼센트)보다 15.7퍼센트 높은 84.0퍼센트의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돼지 10마리를 출하할 때 8~9마리가 육질 1등급 이상을 받는다는 얘기다.

몇 해 전 양돈 산업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네덜란드로 연수를 간 것이 계기가 됐다. 네덜란드는 양돈 산업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까닭에 모든 농장에서 시설, 환기, 방역, 모돈 관리 등의 사육관리 시스템이 매뉴얼화돼 있었다. 특히 농장 내에 오밀조밀한 구조물 등을 설치해 바람의 흐름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를 눈여겨본 이 대표는 귀국하자마자 자신의 농장에 이런 환기 시설을 바로 적용했다. 사육장 내에서 바람이 많은 곳에 구조물을 설치해 일정한 유속을 유지하고 돼지의 호흡과 체중, 두수 등을 고려해 환기 방법도 달리했다. 또 사육 환경에 맞춰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대표는 실험정신을 발휘했다. 방법을 달리 시도할 때마다 꼼꼼히 기록하고 데이터화해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는 데 주력했다.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어두운 색상의 구조물이나 자재를 쓰는 것을 피했다. 일부러 밝은 색 자재를 이용해 수시로 청소하는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았다.

또 차단 방역에도 만전을 기했다. 이 대표는 농장 전체를 잘 정돈하는 것을 비롯해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는 한계선을 농장으로부터 100미터 남짓 떨어진 곳에 설정했다. 농장 내 유휴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차단 방역을 철저히 했다. 양돈사육장에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오염원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철저한 방역시설을 갖췄다.

1등급 돼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이뤄낸 이건식 대표가 부인과 함께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에서 한돈부문 대상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았지만 돌아보면 이게 천직"

이 대표가 올해 축산물품질평가대상을 수상한 데에는 무엇보다 '출하 환경'을 바꾼 것이 한몫했다. 대부분 농장들이 돼지의 생산성 향상에만 신경을 쓰기 십상인데, 이 대표는 돼지의 상태를 고려해 출하 시기를 조절하는 등 출하에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예전에는 하루의 대부분을 돼지를 키우는 데만 몰두했다면 올해는 오전에는 돼지를 키우고 오후에는 이틀 뒤 출하 예정인 돼지의 무게를 달고 상태를 점검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예전에는 돼지를 키우기만 하면 어디든 출하할 데는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출하 두수가 1천만두를 웃돌면서 돼지를 키워도 출하할 데가 없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위기입니다. 잘못하게 되면 출하할 때마다 페널티를 받게 되니까 페널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자꾸 연구하게 되더라고요. 과학 축산이나 친환경 축산을 실천해 본 거죠."

같은 사육장 안에 있더라도 첫째 칸과 마지막 칸에 있는 돼지는 출하 시기가 15일 정도 차이가 난다. 자연히 지육중량이나 등지방 두께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실을 간파한 이 대표는 출하 전에 돼지의 체중을 달고 상태를 면밀히 살폈다. 이를 기준으로 돼지를 선별해 균일한 체중의 돼지를 출하했다. 또 달별·계절별로 돼지 무게며 상태, 출하 시기 등을 꼼꼼히 기록해 오차를 줄여나갔다. 이 같은 데이터들은 이 대표만의 노하우로 올곧게 남아 있다. 30년 전 돼지 12마리로 양돈을 시작한 그는 현재 4,500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고 매달 700~800두 정도를 출하하는 대규모 농장주가 됐다.

실패와 좌절도 있었다. 11년 전 화재로 양돈사육장 대부분이 전소돼 돼지 1천여 마리를 잃었다. 해마다 1천만원씩 상승하는 사료값도 늘 큰 장벽이었다. 지난 2010년에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자식 같은 돼지 전부를 살처분해야 했다.

"그 해 12월 초 출하가 금지됐어요. 당시는 이웃끼리 악수조차 하지 않고 수시로 이곳 저곳을 소독하며 외부와의 접촉도 아예 차단했지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어요. 아무 일 없이 넘어가나 싶었는데 결국은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때 심정이란…"

이 대표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자식처럼 키우던 돼지들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던 모습을 두번 다시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라고 했다. 그 일을 겪은 뒤 이 대표는 1년이 넘도록 돼지 사육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양돈을 다시 시작한 것은 지난해 8월부터다. 그리고 이번에 한돈부문 대상을 받았다.

"30년 동안 돼지를 키웠습니다. 천직이라고 할까요. 돌아보면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날들도 많았는데, 키우면 또 그 만한 보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괜찮은 돼지를 기르려면 더 노력하는 수밖에요."

말을 맺기도 전에 돼지 우는 소리에 눈을 돌리는 그는 역시 '돼지 아빠'였다.

글과 사진 · 이은정 객원기자

국민애벌레 '라바' 탄생시킨 맹주공 감독

"방귀·트림은 인류 공통유머… '빵' 터지죠"

오상민 기자

맹주공 감독은 캐릭터를 애벌레로 만든 이유를 "망가지기 쉽고 독특했기 때문"이라며 "꼭 예쁘거나 귀여워야 사랑받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뉴욕 52번가 횡단보도 밑 하수구. 온몸을 꿈틀대며 하수구를 누비는 두 마리 애벌레는 지하로 떨어지는 온갖 쓰레기들을 가지고 어이없는 '쇼'를 선보인다. 팔다리가 없어 긴 혀를 뽑아 척척 빈 병을 타고 오르고, 대롱대롱 매달리기도 한다. 소시지 하나에 목숨을 걸고 '꺼억꺼억' 트림하고 방귀를 쉴 새 없이 뀌어대는 두 주인공은 1분여간 정신을 쏙 빼놓는다.

출퇴근길 버스나 지하철에서 한번쯤 보고 '킥킥' 웃었을 법한 장면들이다. 토종 슬랩스틱 코미디 애니메이션 〈라바(larva)〉다. 애니메이션계 '아이돌'로 불리며 그야말로 요즘 대세의 길을 걷고 있다. 최근 '2013 대한민국콘텐츠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인기를 입증했다.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이미 97개국에서 방영하고 있으며 올해 캐릭터 수입으로만 600억원을 바라보고 있다. 제품만 700여 가지에 이른다. 내년 2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국제에미상 후보에까지 올랐다.

12월 17일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투바엔터테인먼트에서 라바 캐릭터를 창조한 '아빠' 맹주공(41) 감독을 만났다. 요즘 '효자' 라바 덕에 연신 싱글벙글이다.

2011년 첫선을 보인 〈라바〉는 KBS와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되며 인기를 끌었다. 회당 분량이 90초에 불과해 유튜브를 비롯해 지하철, 버스, 아파트, 엘리베이터, 옥외 전광판까지 진출했다. "영상이 길면 잘 안 보니까 짧은 시간 '빵' 터뜨리는 것을 기획한 거죠."

이 애니메이션에는 단 한마디의 대사도 없다. 맹 감독은 "언어는 감성과 문화를 직접적으로 담기 때문에 우리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까지 의미를 전달하기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대사가 없는 만큼 다양한 표정들로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대신 방귀, 트림, 똥 등 소재들이 원초적이다. "이런 소재는 인류 공통의 유머"라는 맹 감독은 "버스에 앉아 있다가 누군가 방귀를 뀌어봐요. 더럽다기보다 웃기다는 생각에 '풉' 하고 웃음을 터뜨리게 되죠. 그런 생각들은 국경을 초월하나 봐요"라며 웃음을 지었다.

왜 하필 친근한 동물을 제쳐두고 애벌레를 선택했을까? 맹 감독은 "망가지기 쉬우면서도 독특한 캐릭터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에 가보니 다양한 캐릭터들이 많았어요. 꼭 예쁘고 귀엽게 생겨야 사랑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시즌 1 배경이 하수구인 이유는 굉장히 현실적이다. "제작비가 없었다"며 운을 뗀 맹 감독은 "예산이 적게 들려면 배경이 한정적이어야 해요. 하지만 에피소드마다 아이디어는 새로워야 하죠.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곳이 어딜까 생각하다 보니 사람들이 음식물이나 담배꽁초, 각종 쓰레기 등을 다 버리는 배수구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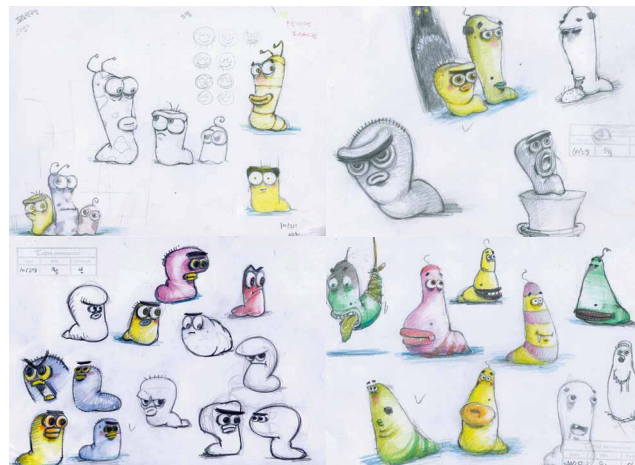
하지만 라바가 탄생하기 전까지는 그의 인생도 꼭 라바의 수난과 비슷했다. 대학에서 회화를 공부하던 그는 순수미술에 염증을 느꼈다고 한다. "소수만이 아니라 대중을 위해 그림을 그려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림으로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화를 생각하게 됐고, 이왕이면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용기를 갖고 차린 기획사는 얼마 되지 않아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 이후 들어간 벤처회사도 3년 뒤 어려워졌다. 다시 창업을 했지만 창작과 외주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실패했다. 거듭되는 실패에 지쳐 있을 무렵이던 2007년 지금의 투바엔터테인먼트에 입사하게 됐다. 그의 나이 서른 다섯이었다.

이후에도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겠다는 열정은 멈추지 않았다. "창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욕심이겠죠. 우리 것 좀 만들어보자는 가슴 속의 뜨거운 욕구를 해결해야 했거든요." 지금의 라바가 탄생하게 된 계기였다.

내년 5월 전국에 '라바 테마파크' 신설

맹 감독은 지금의 라바 캐릭터의 초기 스케치들을 모니터 화면으로 보여줬다. 수십 개에 달하는 애벌레들이 각종 무늬와 크기별로 '진화(?)'하고 있었다. 고뇌의 흔적이 보였다. 무엇보다 그가 강조한 부분은 캐릭터 '옐로우'의 콧구멍이었다. "원래 콧구멍이 없었는데 디자인하는 친구가 자꾸 콧구멍을 그려넣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상하더니 자꾸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콧구멍은 〈라바〉 시즌이 거의 다 만들어지면서 급히 그려넣은 거예요." '옐로우'의 콧구멍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며 캐릭터의 표정을 더욱 풍부하게 살렸다. 콧구멍으로 비눗방울을 만드는 에피소드도 만들었다.

투바엔터테인먼트

라바 캐릭터의 초기 스케치. 수십 개에 달하는 애벌레들이 다양한 무늬와 크기별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기발한 에피소드는 6명으로 구성된 스토리팀이 매번 머리를 쥐어짜야 만들어진다고 했다. 틈만 나면 탁구대로 만든 테이블에서 회의를 한다.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스토리가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빵이 어떨까?로 시작하면 빵을 갖고 이야기가 덧붙여져요. 그러면서 디테일이 더해지죠. '그 똥을 어떻게 할까?' '콧물을 더 늘려?'와 같은 시답잖은 내용으로 고민을 계속해요."

다행히 스토리팀원들은 모두 재미있는 친구들이라고 했다. "라바와 비슷한 인물들이죠. 특히 초창기 멤버 안병욱 조감독은 캐릭터 '레드'와 똑같아요(웃음)." 그렇게 만들어지는 하나의 에피소드에는 6주에서 8주의 시간이 걸린다.

내년에는 더욱 바빠질 예정이다. 2014년 5월 전국에 '라바 테마파크'가 신설된다. 뮤지컬로도 만들어진다. 2015년쯤 개봉을 계획하고 있는 극장용 〈라바〉도 한창 작업 중이다. "어떤 스케일로 만들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어요. 내용도 훨씬 다양하고 풍부해야 할 거고요." 라바 아빠 맹주공 감독은 지금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글·박지현 기자

“낯선 땅에선 ‘할 일’ 있는 게 힘이 되더라”

다큐 〈잉여들의 히치하이킹〉 이호재 감독… 행복 나누는 두번째 프로젝트 준비 중

〈잉여들의 히치하이킹〉을 제작한 이호재 감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무대가 바뀌고 기회가 주어지니 최선을 다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잉여’를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대 ‘잉여인간’들을 위한 잡지 〈월간 잉여〉가 창간됐으며 웹툰 〈잉여도감〉이 SK플래닛 T스토어에 연재되고 있다.

국어사전을 보면 ‘잉여(剩餘)’라는 단어는 이렇게 정의돼 있다. 1. 쓰고 난 후 남은 것. ‘나머지’로 순화. 2. 〈수학〉 ‘나머지’의 전 용어. 즉 ‘잉여’는 굳이 꼭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을 뜻하는 단어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잉여’는 ‘남아도는 청춘’ ‘갈 곳 없는 청춘’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월 28일 개봉된 영화 〈잉여들의 히치하이킹〉은 이 시대 방황하는 청년들의 자화상을 그린 작품이다. 이 영화는 올해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중 최단기간에 1만 관객을 모았다.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선정한 2013년 4·4분기 ‘청소년을 위한 좋은 영상물’로 선정됐다.

〈잉여들의 히치하이킹〉은 자신들을 ‘잉여’라고 부르는 네 명의 청년들이 1년 동안 유럽 여행을 하며 겪은 이야기를 담았다. 2009년 여름 영화과 동기인 호재(이호재·28), 하비(하승엽·26), 현학(이현학·24), 휘(김휘·24)는 등록금을 벌기 위해 영상제작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들이 각자 손에 쥔 돈은 200만원이었다.

다음 학기를 다니기엔 부족한 돈이었다. 빚을 내서 학교를 다닐지, 아니면 스펙을 쌓으며 취업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하던 이들은 졸업 전에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무작정 유럽으로 떠났다. 당시 이들의 손에는 현금 80만원과 카메라 1대만이 들려 있었다. 영화 주인공 4명 중 리더 역할을 맡은 이호재 감독은 “여행이 끝난 뒤에도 개봉이라는 마지막 히치하이킹이 남아 있었는데, 모든 과정이 한 단계씩 해결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대학에서 국제통상학을 전공하다 영화과로 방향을 바꿨다. 예술영화 전용관 영사실에서 일하면서 영화에 푹 빠졌기 때문이다. 인생을 걸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았지만 그는 이 사회에서 ‘잉여’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잉여’ 였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하고 싶은 일은 별로 생산적이지 못하죠. 사회에서 원하는 것,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해야 하는 것들은 잘하지 못하니까 ‘잉여’ 맞죠. 극영화를 하고 싶어 연출 전공을 했는데 재능 있고 잘하는 친구들은 정말 많더라고요.”

하지만 유럽에 가자 네 명의 ‘잉여’들은 달라졌다. 이들은 여행 경비를 벌기 위해 호스텔 홍보영상을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침대와 식사를 제공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여주는 호스텔은 어디에도 없었다. 들고 간 80만원은 한 달도 안 돼 바닥이 났다. 노숙을 한 지 3일째, 한국 민박집에서 연락이 왔다. 그러나 그 동포는 홍보영상은 부탁하지 않고 햄버거만 하나씩 사주고 사라졌다.

홍보영상 제작으로 유럽 숙박업계선 ‘유명 인사’

“첫 호스텔 영상을 만들기까지 숙박업소에 보낸 이메일이 500통 가까이 됩니다. ‘우리의 영상으로 당신의 침대, 그리고 식사를 바꾸겠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취지와 목적을 본문에 설명했는데 아무도 답변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호스텔에서 연락이 와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후 그 영상이 각종 사이트에 공개되자 제가 이메일을 보냈던 모든 곳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명의 ‘잉여’들이 유럽 호스텔계의 ‘유명 인사’로 부상한 것이다. 이 감독은 이런 과정을 찍은 테이프를 5개월 동안 편집해 국내 배급사에 보냈다. 바로 이 영화가 〈잉여들의 히치하이킹〉이다. 이 작품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다큐멘터리 쇼케이스 부문에 초청돼 예매 시작 1분 만에 전석이 매진됐다.

이 감독이 유럽에서 머물며 가장 힘들었던 건 노숙생활도, 히치하이킹도 아니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중도에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상상하는 게 가장 두려웠다고 했다.

“학교를 다닐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재능은 없는 것 같고,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쉽사리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험난한 과정을 지속해 나갈지 몰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호재 감독은 세 명의 영화과 동기들과 함께 1년 동안 유럽 여행을 하며 겪은 이야기를 담아 영화로 만들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달랐습니다. 노숙을 하고, 히치하이킹을 하고, 단돈 80만원밖에 없었지만 그것 자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기회였기에 나름의 기대감과 즐거움은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잉여’라고 여겼고 주변에서도 저희들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반면 유럽 땅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환경에 처하다 보니 그것 자체만으로 버틸 수 있는 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네 명의 멤버 중 휘(김휘)와 하비(하승엽)는 군복무 중이다. 이들이 제대하는 2016년에는 네 명이 다시 모여 두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때는 히치하이킹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이동수단으로 전용 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공연·영상을 상영하며, 작업도 하는 ‘복합적인 창작물’을 만들 예정이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가 직접 문화를 전파하고 행복이라는 가치를 나누고 싶은 게 이들의 목표다.

“비단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 외에도 의사, 요리사, 건축가, 엔지니어 등 많은 이들이 함께 모인 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펼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꿈의 영역을 넓혀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세계 각지를 유랑하는 게 ‘잉여’들의 다음 목표입니다.”

글·김혜민 기자

6개 부처 이사… "이젠 세종시에서 만나요"

연말까지 세종청사 2단계 이전 마치면 '행정중심도시'로서 제 모습 찾아

정부세종청사 2단계 이전을 마친 사무실 모습. 내년 3단계 이전을 마치면 2014년은 온전한 정부부처 이전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13일, 밤 10시가 가까워 오는 시간. 정부세종청사 2단계 구역으로 대형 트럭들이 하나 둘씩 진입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트럭들은 초행인 탓인지 점멸등을 켜고 도로 중간중간에서 길을 찾아 멈칫멈칫하는 모습들이었다. 세종청사로 이주하는 정부부처의 짐들을 실은 이사트럭들이었다.

"주말이어서인지 차가 많이 막혀서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서울에서 오후 6시가 조금 못 돼 출발했는데, 네 시간 가까이 걸렸네요." 한 이사트럭 운전기사는 추운 날씨에 손을 비비며 조금은 생소하고 또 조금은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봤다.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길게 이어진 세종청사의 건물들은 밤중에 그 모습을 더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 같았다. 13일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이전하는 부처들이 들어서는 청사 9동에서 15동까지의 건물들은 모두 불을 켜놓아 불야성을 방불케 했다. 반면 딱 1년 전인 지난해 이맘때 이사를 마친 1단계 이전 청사들에는 불이 켜진 사무실도 있고 꺼진 사무실도 있어 확연한 대조를 이뤘다.

"여러분, 오늘 밤 모두 수고 좀 해 주세요. 두어 가지 당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서류든 비품이든 정부 물품, 국가 물품들이니 특히 조심해서 날라 주세요. 분실하거나 깨지는 등 이상이 생기면 서로 곤란합니다. 또 하나, 실내에서는 절대 금연입니다.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린 같은 날 늦은 밤 14동 교육부청사 정문. 한 이삿짐 운반업체의 현장 책임자는 20여 명의 젊은이들에게 간단하게 지시한 뒤 트럭 짐칸의 문을 열고 하차 작업을 주도했다. 이른바 11톤 탑차로 통하는 커다란 이사트럭의 화물칸에는 잘 포장된 짐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다.

"오늘 밤을 새워야 할지 모르니까, 무리하면 안 됩니다. 부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조심 꾸준하게 물건을 나른다는 생각으로 일해 주세요."

현장 책임자가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이삿짐 나르는 젊은이들을 독려했다. 이삿짐을 옮기는 젊은이들의 상당수는 대전 등 인근지역에서 모집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로자였다.

"건물이 이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좀 어설퍼 보이지만, 자리를 잡으면 세종시가 정말 대단한 도시가 될 것 같은데요." 24세의 한 이삿짐 운반 아르바이트 학생은 "청사 이전이라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데 동참하게 돼 힘들지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알바가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전행정부의 청사이전 태스크포스 팀에 따르면, 이번 2단계 청사 이전에는 2천대 가까운 트럭이 투입된다. 지원 인력 등이 타고 오는 승용차까지 포함하면 수천 대의 차량이 보름 남짓한 청사 이전 기간에 동원되는 것이다. 태스크포스 팀의 최교신 사무관은 "이사를 위해 예비비로 290억원가량이 책정됐다"며 그 규모가 엄청난 것임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청사 이전작업은 이전하는 개별 부처들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전체적인 일정 조율과 이사 지침은 안전행정부가 마련했다. 안전행정부는 서울과 세종청사에 24시간 종합상황실을 개설하고 올해 말까지 가동한다. 이사 첫날 밤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어도 근무자들은 곧바로 전화를 받는 등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었다.

최 사무관은 "폭설이나 교통사고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경찰, 국토부 등과 협조연락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단계 이전의 첫 테이프를 끊은 곳은 주로 정부부처 소속기관들이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해외문화홍보원 등이 그런 예다. 서울의 서소문 사무실을 떠나 이사 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13일 점심 때가 조금 넘은 시각 세종청사에 짐을 풀기 시작했다. 산뜻한 새 건물의 손상을 막기 위해 짐들이 이동하는 복도 등의 통로에는 비닐 보호덮개들이 길게 깔려 있었다. 짐들은 주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위층으로 옮겨졌는데 고장이나 별 탈 없이 순조롭게 작동됐다. 청사 밖에서는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막바지 조경작업 등이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서울이 집이라는 한 이삿짐업체 직원은 작업을 지휘하면서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건물이 정말 웅장하네요. 압도되는 느낌입니다. 엄청나게 큰 건물들이 이런 식으로 길게 이어져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울의 중요한 한 축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서울에 애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솔직히 유쾌한 기분은 아니라고 털어놨다.

2014년은 사실상 정부부처 이전 원년

연말까지 이사를 마치는 2단계 이전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6개이다. 이들 부처에 딸려 있는 소속기관은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10여 개에 이른다. 이사 규모는 부처의 크기와 거의 정비례 하는데,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트럭 400대 규모로 가장 크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각각 250대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 청사 이전으로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제 모습을 한층 뚜렷하게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1단계 이전으로는 반쪽짜리 같았던 청사 건물이 2단계 이전으로 양 날개를 펼친 듯 외양부터 안정감을 주고 있다. 이전 부처 직원들의 이주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 세종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는 등 도시의 활력이 배가될 게 확실하다.

내년 하반기 3단계 이전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여서 2014년은 온전한 정부부처 이전의 원년으로 기록될 듯하다. 청사 구역과 첫마을의 길가 등 세종시 곳곳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환영한다'는 문구가 걸린 현수막과 깃발들이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이 눈에 띄었다. 청사 이전으로 한층 빠르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착근하는 세종시의 모습이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그려졌다. G

글 · 김창엽(자유기고가)

세종통신은 이번 호를 끝으로 마칩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해장국은?

중앙포토

해장의 역사는 술의 역사와 함께할 것이다. 술의 탄생과 함께 생겨난 애주가들에게 애초부터 해장은 아침을 여는 의식이었다. 어제의 술로 지친 속을 달래주어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해장이라는 단어는 숙취를 푼다는 의미의 해정(解酲)에서 비롯되었지만 속을 푼다는 뜻의 해장(解腸)으로 자리 잡았다.

해장의 방법은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며, 술꾼마다 다르다. 서양 사람들은 토마토주스에 보드카를 섞은 칵테일을 마시기도 하고 소금과 식초에 절인 청어를 먹기도 하며, 심지어 식은 피자나 햄버거로 해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의 해장은 역시 뜨겁고 얼큰한 국물을 들이켜며 "시원하다"를 읊조려야 제격이다. 조선시대의 여러 요리책에서 해장국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주막에서 먹던 서민의 음식이라 그런지, 그 시절 흔히 먹던 탕반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그런지는 모르겠다.

굳이 그 흔적을 찾자면 고려 말의 중국어학습서 <노걸대(老乞大)>에 "육즙에 정육을 잘게 썰어 국수와 함께 넣고 천초(川椒)가루와 파를 넣는다"고 기록되어 있는 성주탕(醒酒湯)을 들 수 있다.

20세기 초에 출간된 <해동죽지(海東竹枝)>에는 효종갱(曉鍾羹)도 나온다. "배추속대, 콩나물, 송이, 표고, 쇠갈비, 해삼, 전복을 토장에 섞어 종일토록 푹 곤다"는 효종갱은 세도가들이 새벽에 남한산성에서 배달시켜 먹던 양반 해장국이다. 해장국을 옛날에는 술국이라고 했다. 술집에서 안주로도 팔고 술 마신 다음날 해장하느라고 먹는다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좀 유식한 축들은 주탕(酒湯)이라 불렀고, 밥을 말면 주가탕반(酒家湯飯)이라고 했다.

소설가 박종화(朴鍾和·1901~1981)는 한 세기 전의 주당이 술국으로 해장하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실감나게 묘사한 바 있다. "동지섣달 길고 긴 추운 밤을 지내다가 새벽이 찾아와서 일을 하러 직장으로 나갈 때, 찬밥 한 덩어리를 들고 양골 끓이는 술집으로 찾아가서 약주술 두서너 잔에 양골로 안주를 하고 밤 지낸 빈창자에 술국밥을 먹는 맛이란, 그 시점만은 천하의 행복을 독차지한 성싶다."

양골국은 살코기를 발라낸 뼈다귀를 토막 쳐서 밤새 곤 국물에 된장을 풀고 우거지를 듬뿍 넣어 흐무러지도록 푹 끓인 일종의 토장국이다. 그 시절의 술꾼들은 아예 술국집에 자신의 전용 뚝배기를 맡겨놓고 밥은 베보에 싸갖고 가서 뜨거운 국물로 토렴한 뒤 다시 국을 부어 말아 먹었다는데, 유명한 집일수록 맡아놓은 뚝배기의 수가 많았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해장국은 지역별로 다양하다. 전주의 콩나물국밥, 부산의 재첩국과 복국, 대구의 따로국밥, 충청도의 올갱이국, 강원도의 곰치국 등이 유명하지만 서울을 대표하는 해장국은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선짓국이다. 그러나 예전의 술국에는 선지가 들어가지 않았다.

선지를 술국에 넣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무렵부터라는 것이 풍속에 밝았던 언론인 조풍연(趙豊衍)의 설명이다. 그는 또 선지를 넣은 연유가 손님들이 원하는 건더기를 늘리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당시의 유명한 해장국집이었던 돈암동의 '곽서방네집'에서 확인했노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즈음부터 술국이라는 이름도 해장국으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따지고 보면 음식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어쨌거나 선지해장국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대한민국 주당들의 속을 달래주고 있다. 서울 종로구 청진동의 '청진옥'과 동대문구 용두동의 '어머니 대성집'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선지해장국의 명가들이다. G

글 · 예종석(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음식문화평론가)

"아직도 결핵 환자는 사랑 고프다"

1969년 12월 10일 대한결핵협회가 크리스마스실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내보낸 텔레비전 광고. 배우 사미자 씨가 출연했다.

1960~1970년대에 해마다 크리스마스 무렵이면 크리스마스실(seal) 사는 것을 연례행사로 여겼다. 카드나 연하장을 보낼 때 영문도 모른 채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듯이 우표와 나란히 실을 붙여 보낸 기억들이 있으리라. 학교에서도 크리스마스실(당시는 크리스마스 '씰'로 표기)을 단체로 구입해 학급별로 할당하는가 하면 크리스마스실을 사려고 우체국 앞에 줄을 서기도 했다.

크리스마스실 판매 캠페인은 대한결핵협회가 창립된 1953년부터 결핵 환자의 치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2013년 현재도 우리나라에는 10만명당 79명의 결핵 환자가 있으며 이 수치는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한다. 그런데도 최근 들어서는 크리스마스실 판매가 급감하고 있다.

대한결핵협회의 텔레비전 광고 '크리스마스실' 편(KBS 1969년 12월 10일)을 보자. 광고가 시작되면 "크리스마스실을 삽시다"라는 헤드라인이 커다란 자막으로 제시된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실을 사는 장면들이 삽입 컷(insert cut)으로 슬쩍슬쩍 스쳐가고 나면 앳된 얼굴의 사미자 씨가 등장해 이렇게 강조한다.

"여러분이 결핵 환자를 위해 사주시는 이 조그만 딱지 한 장 한 장이 무서운 결핵을 뿌리 뽑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에도 이 크리스마스실을 많이 사서 결핵 환자를 도웁시다."

흥미롭게도 이 광고에서는 크리스마스실을 '딱지'라고 표현했다. 당시에 무서운 병이었던 결핵을 치료하는 원동력이 바로 색동옷과 무궁화 문양이 그려진 딱지 한 장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또박또박 전달하는 사미자 씨의 차분한 말투는 그 시절의 시청자들에게 호소력 있는 메시지로 다가갔으리라.

크리스마스실 캠페인 광고가 처음 나온 것은 1960년 12월이다. 영화배우 최은희 씨가 '크리스마스씰을 삽시다'라는 캠페인 광고를 촬영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 후 1961년 12월에는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엄앵란 씨가, 1967년 11월에는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로 불렸던 영화배우 김지미 씨가, 1970년에는 배우 김자옥 씨가 크리스마스실 캠페인의 광고 모델이었다.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거의 무료로 출연했을 만큼 크리스마스실 판매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 캠페인이었다. 극장에서도 영화 상영 중간에 실 판매 광고를 내보내기도 했다.

크리스마스실과 관련해 올해 크리스마스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대한결핵협회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이를 기념해 역대 크리스마스실 '베스트 10'을 묶어 '올해의 크리스마스실'로 발행했다.

그런데도 크리스마스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안타깝다. 크리스마스실의 판매액은 2009년 57억2천만원에서 2012년 43억원으로 25퍼센트나 감소했다. 대한결핵협회가 트렌드를 고려해 '뽀로로' 캐릭터나 김연아 선수를 디자인에 활용했는데도 별 효과가 없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크리스마스실 캠페인에 동참하자. 1960년대의 스타들처럼 요즘 스타들이 크리스마스실 광고에 무료로 출연한다면 어떨까. 아직도 결핵 환자들은 국민들의 사랑이 고프다. G

글 · 김병희(한국PR학회 회장 ·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e크리스마스씰 loveseal.knta.or.kr

조숙한 소녀의 풋사랑, 사과꽃 향기

은희경의 첫 장편 〈새의 선물〉은 "열두 살 이후 나는 성장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조숙한 소녀가 주인공이자 화자인 성장소설이다. 1969년 남도의 지방 소읍을 배경으로 해 열두 살 소녀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일들과 사람들 이야기다.

주인공이 여섯 살 때 어머니는 자살했고, 아버지는 사라졌다. 외할머니 슬하에서 이모, 삼촌과 함께 사는 '나'는 삶의 이면을 볼 줄 아는 조숙한 소녀다. 이 소녀는 남에게 '보여지는 나'와 자신이 '바라보는 나'를 분리하면서 빠른 눈치로 주변 일과 사람들을 관찰해 나간다. 이 책 뒷면에 '생의 진실에 던지는 가차없는 시선!'이라고 씌어 있는데, 이 소설 특징을 잘 잡아낸 문구 같다.

나오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어린 시절 한번쯤 본 듯한 이웃들이다. 철없지만 순수한 이모, "밤에 돌아다니는 계집들은 사내들한테 익혀놓은 음식"이라며 딸 단속하는 할머니, 외아들만 믿고 사는 과부 '장군이 엄마', 바람둥이 광진테라 아저씨, 착하고 인정 많은 광진테라 아줌마, 이모를 짝사랑하는 순정파 깡패 홍기웅…. 등장인물들은 저마다 개성이 생생하게 살아 있다.

소설가 윤흥길은 이 소설에 대해 "시종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해학적인 문체와 치밀한 심리묘사, 특히 동생을 등에 업은 채 천방지축 팔방놀이를 하는 소녀, 늘 가출을 꿈꾸면서도 버스가 떠난 다음 먼지구름 속에 남아 있는 광진테라 아줌마의 묘사 등은 참으로 압권"이라고 했다.

특히 이모에 대한 묘사가 해학적이다. "물에서 씻어 막 건져낸 자두처럼 싱싱"하지만, "스무 살을 어디로 다 먹었는지 어른스러운 모습을 느낄 수가 없는" 인물이다. 게다가 "걸음마를 배운 이래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어" 걷다가 자주 넘어지는 아가씨다. 이모는 펜팔로 사귄 군인과 교제하다가 자신의 절친에게 빼앗기는 아픔을 겪는다. 그 다음에는 삼촌의 서울 친구인 허석을 놓고 열두 살인 '나'와 연적 관계를 이룬다.

이 소설에는 사과꽃이 열두 살 소녀의 풋사랑을 상징하는 꽃으로 나온다. 소설 중간쯤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가슴이 설레는 걸 보면 진정 나는 사랑에 빠진 모양이다. 과수원이 가까워질수록 꽃향기가 진해진다. 사과꽃 냄새다. 삼촌과 허석이 앞서 서 걷고 그 뒤를 나와 이모가 따라간다. 어두운 숲길에는 정적이 깃들어 있고 사과꽃 향기와 풀벌레 소리, 그리고 하늘에는 별도 있다. 나에게 느껴지는 것은 다만 허석, 그와 밤 숲길과 사과꽃 향기뿐이다. 사과꽃 향기에 싸여 그와 내가 봄 숲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202쪽)

풋내나는 사과꽃 향은 설익은 사랑을 떠올리게 만든다.

초록색 안개에 싸인 과수원의 사과나무꽃은 황혼을 배경으로 서 있는 남자의 실루엣과 함께 이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아름다운 장면이다. '나'는 허석이 그리우면 8월의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풋사과가 매달린 과수원길을 한없이 걷는다. 풋사랑이라 당연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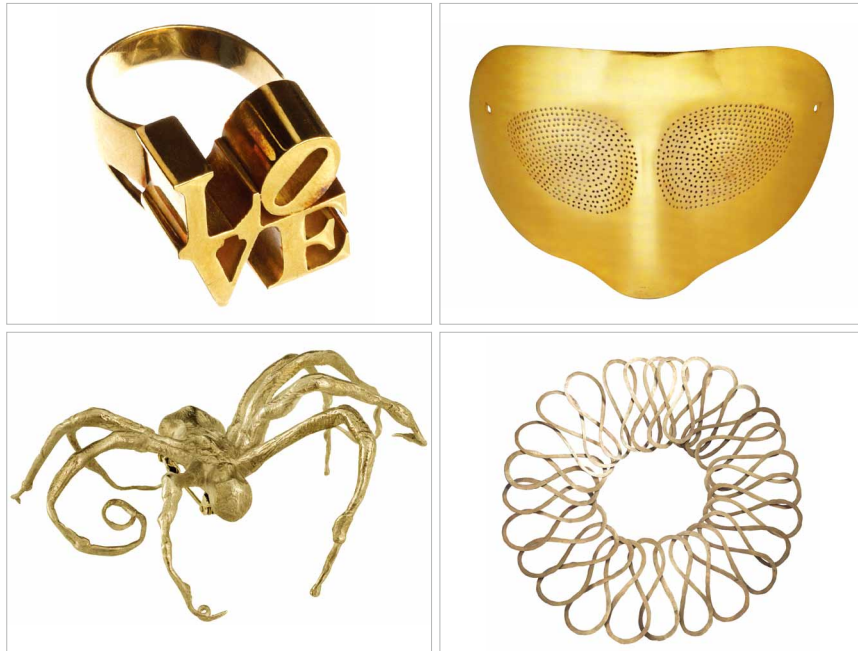
생각해 보니 10년 넘게 꽃을 찾아다녔으면서도 사과꽃을 주의깊게 관찰한 적은 없는 것 같다. 내년 봄엔 가까운 과수원에라도 들러 자세히 보면서 향기도 꼭 맡아봐야겠다.

작가 은희경은 1959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숙명여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두 달 만에 썼다는 〈새의 선물〉로 1995년 제1회 문학동네 소설상을 받으면서 유명 작가 반열에 올랐다. 1997년 소설집 〈타인에게 말 걸기〉로 동서문학상, 1998년 단편 〈아내의 상자〉로 이상문학상도 받았다.

글 · 김민철(조선일보 기자 · 〈문학 속에 핀 꽃들〉 저자)

크리스마스 선물

글과 그림 · 최영순

오늘 계란 하나를 갖는 것보다 내일 암탉 한 마리를 갖는 쪽이 훨씬 낫다.
– 토머스 풀러(17세기 영국의 성직자)

앤디 워홀 등 현대미술 거장들이 제작한 주얼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다.

보석에 아로새긴 '현대미술사'

〈피카소에서 제프 쿤스까지〉

현대미술의 거장들이 만든 '보석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다. 천재 화가 파블로 피카소와 팝아트의 선구자 앤디 워홀 등은 그림뿐 아니라 주얼리도 제작했다. 12월 12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에서는 이들이 만든 주얼리 전시전이 열린다.

피카소는 그의 연인 도라 마르를 위해 작은 조개로 목걸이를 만들다가 이후에는 금으로 장신구를 만드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또한 프랑스 작가 겸 영화감독인 장 콕토는 1930년 엘자 스키아파렐리와 샤넬 등 여러 점의 주얼리를 제작한 바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파블로 피카소, 살바도르 달리, 앤디 워홀, 데미언 허스트 등 현대미술사의 저명한 작가들과 디자이너 론 아라드 등 150여 명의 예술가들이 제작한 주얼리 200여 점이 전시된다. 관람객들은 이 전시물을 통해 입체주의, 초현실주의 등 현대미술 사조의 각 특성을 읽어낼 수 있다.

이 전시는 아테네, 뉴욕 등에 이은 전시회로 아시아에서는 처음 개최된다. 전시는 서울에서 열린 후 부산, 브라질의 상파울루로 이어질 계획이다. 전시회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조각, 그림 등으로 유명한 거장들의 기발하면서도 독특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글 · 김혜민 기자

기간 2014년 2월 23일까지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 **문의** ☎ 02-790-3763

공연

품바-날개 없는 천사

드라마와 놀이가 결합된 새로운 형식의 연극 〈품바〉가 공연된다. 고(故) 김시라 씨가 만든 이 작품은 구전민요와 각설이 타령을 결합한 작품이다. 올해 '날개 없는 천사'라는 제목으로 재해석된 이 작품은 각설이 대장 천장근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국내 최장기, 최다공연, 최다관객으로 한국의 기네스북에 등록돼 있는 〈품바〉는 1981년 첫선을 보인 이래 올해 1월 5,500회 공연을 돌파한 바 있다. 공연 관계자는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세계적이라는 평을 듣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기간 12월 31일까지
장소 서울 대학로 상상아트홀 품바전용관
문의 ☎ 02-747-7491

돌아온 박첨지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통 인형극 〈돌아온 박첨지〉가 공연된다. 이 작품은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된 한국 유일의 전통 인형극 〈꼭두각시놀음〉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유머와 풍자를 곁들여 재구성한 작품이다. 점점 흐릿해져 가는 전통극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이번 공연에는 남사당놀이 인간문화재 박용태 씨 등을 비롯한 전통문화 전문가들과 현재 공연계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기간 12월 29일까지
장소 서울 종로구 예술공간 서울
문의 ☎ 02-889-3561~2

눈치우기 작전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짧은 만남, 긴 공감

중앙포토

고(故) 공병우 박사(1907~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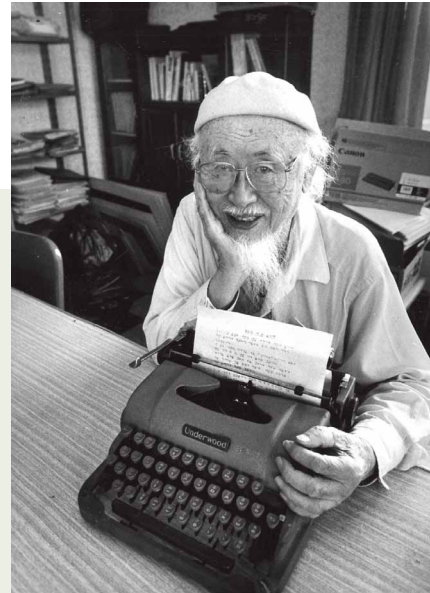
누구라도 잊을 수 없는 만남이 있게 마련이다. 그 가운데서도 늘 가슴속에 깊이 모시며 삶의 굽이굽이마다 떠올릴 수 있는 만남이라면 정말 귀중하다. 인생을 마치기 전에 이러한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행운이다. 내게는 돌아가신 공병우 박사님과의 만남이 그러한 행운이었다.

공병우 박사님은 널리 알려져 있듯이 안과 명의로 이름을 날리셨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당신께서는 한글의 중요성을 깨닫고 겨레의 눈을 뜨게 하는 큰 의사로서 한글 기계화와 한글 과학화에 늘 앞장서셨다.

1990년이었다. 만 서른이 안 된 젊은 교사는 학교도서관을 만드느라 정신없이 몰두하고 있었다. 책을 모으고 도서반과 함께 서가를 손질했다. 다행스럽게도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당시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컴퓨터가 안성맞춤이었다.

컴퓨터 통신은 그야말로 금상첨화의 도구였다. 실제로 컴퓨터통신은 도서관의 정신과 효용성을 그대로 구현하는 마법사였다. 즉 가치 있는 것들을 창조하고 저장하며 이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컴퓨터 통신은 도서관의 운영과 방향을 암시하는, 도서관 그 자체였다. 지금 인터넷과 모바일이 보여주는 세상을 충분히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었다.

마땅하게 물어볼 곳도 없던 때였다. 컴퓨터 통신은 모르는 곳과 무한히 연결되며 그 끝에 마주 앉아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었다. 전문 프로그래머는 물론 소방수, 형사, 자영업자, 교사 등등 그야말로 이 세상 모든 이들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고, 그렇게 또 다른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공병우 박사님을 만나 뵌 것도 그 덕분이었다.

당시 박사님께서는 한글문화원을 운영하고 계셨다. 토종 워드프로세서를 만든 한글 개발자들은 물론 젊은 인재들에게 공간을 무료로 쓰게 해 주시고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유능하나 가난한 청춘들에게 공 박사님은 거인이셨다. 특히 한글을 컴퓨터에서 어떻게 구현하느냐의 문제인 한글 코드 문제가 필연적으로 불거졌을 때 한글 과학화를 위한 방향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제시하고 가장 열정적으로 추진하셨다.

숭문고 도서반 학생들을 데리고 공병우 박사님을 인터뷰하러 갔을 때, 당시에 이미 팔순이 넘으신 당신께서 일일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짜장면과 돈까스를 사 주셨던 일은 도서반의 전설이다. 그뿐인가. 당신께서 만드신 새 타자기도 직접 창고에서 꺼내 주셨다. 언제나 사무실 한 편에 간이침대를 하나 놓고 열심히 일하시던 모습, 소박한 자세와 열정적인 태도는 비단 나만의 마음 속 은사는 아니었다. 당시에 선생님께 영향을 받았던 영혼들은 한글의 기계화, 과학화는 물론 한글의 미학성과 철학성 등 다양한 흐름들을 낳으며 지금까지 다양하게 확대되고 무한하게 심화되어 왔다.

최근 서울여대 시각디자인학과 한재준 교수를 만나서 한글 정신을 구현하는 한글 인테리어를 함께 고민하게 된 것도 이러한 흐름의 하나이리라. 한재준 교수 또한 공병우 박사님을 마음 깊이 모시고 한글의 미학성과 과학화에 전력투구해 온 한글 타이포그라피 전문가다.

책따세(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는 우리 아이들을 책을 쓸 수 있는 인재로 키우고 자신의 저작물 가운데 하나 이상을 인터넷에서 누구나 무료로 읽을 수 있게 하자며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이는 모두 세종대왕께서 이미 밝히고 공병우 박사님이 보여주었듯 애민과 자주, 실용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

글·허병두(서울 숭문고 교사·'책따세' 대표)

2014년 상반기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 예고

2014년 1월 ~ 5월 사이에 공개모집하는 정부 개방형 직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많이 응모하시기 바라며, 직위별 관련 분야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부처(인사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방형직위 : 5개기관 10개직위(고공단8, 과장급2)

부 처	직 위	보직가능직종	공고시기	문의처
고용 노동부	감 사 관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나등급	'14. 1월	044)202-7858
	중앙노동위 조정심판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나등급	'14. 1월	
	충남지방 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서기관(일반임기제)	'14. 1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학예연구관·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나등급	'14. 1월	044)203-2120~6
보건복지부	국립춘천병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나등급	'14. 1월	044)202-2164~5
	국립마산병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나등급	'14. 1월	
	국립목포병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나등급	'14. 1월	
	국립소록도병원 피부과장	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14. 1월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나등급	'14. 3월	02)2110-5052 13. 12. 30 이후 044)203-5061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나등급	'14. 2월	02)2100-5662

개방형 직위 응시자격(고위공무원 기준이며, 괄호는 4급 과장급 기준임)

학력

- 석사이하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과장급: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과장급:2년)인 자
- 박 사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과장급: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4년(과장급:2년) 이상인 자

자격증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과장급 :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5급 채용 자격증*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과장급 : 2년) 이상인 자

※자격증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상 5급 일반직 공무원의 채용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을 원칙으로 함

공무원경력

- 관련분야에서 2년(과장급: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과장급:4급(상당) 공무원 또는 5급(상당) 중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
- 관련분야에서 4년(과장급: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과장급: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경력

- 관련분야에서 3년(과장급 :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과장급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실무자급 7년) 실무자급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 보수수준, 제출서류 등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공고시기에 해당부처에서 공고할 예정이므로 부처 홈페이지 또는 나라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